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003. 4호

기획 Women in yonsei

특집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

이탈의 우리 모두 일어야 할 민생폭력 이야기

성폭력,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남성이 바라 본 세상

군대 성폭력과 "계간"금지법

CONTENTS

01 기획 | Women in yonse

- 여학생 휴게실, 119 구조가 필요해 • 2
- 반성폭력 학칙, 이대로 괜찮단 말인가 • 4
- 교양체육, 들을 만 한가요? • 10
- 대학에서, 여성교수를 만나고 싶다 • 12

15 특집 |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

- 혼자 버티는 거야? 아니 혼자 노는 거야! • 16
- 여성으로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 • 20
- '혼자 살'을 자기 것으로 떠 안은 네 여자의 수다 • 26
- 장애여성의 독립 - 〈거북이 시스템즈〉를 보며 • 30



34 여성학 서평 |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36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 '천생연분'은 없다

38 만화 비평 | 꽃과 꿀벌 - 평범한 소년의 연애 성장기

40 남성이 바라본 세상 | 군대 성폭력과 "계간" 금지법

42 이갈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 성폭력,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44 1학기 결산 | 총여학생회 1학기 예산 결산 공고

기획 | Women in Yonsei

벌써 방학이 다 끝나버렸군. 2학기에는 1학기보다 좀 더 잘 살아봐야 할텐데
음, 그러고 보니 2학기 시간표에는 1학기때보다 빈칸이 없네
공강이 몇 시간이나 있는 거지?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어휴, 뭐 이렇게 많아?
이번엔 전공 과목을 많이 들으니까 조별표도 많을 테고 숙제도 많을 것 같은데
1학기때보다 밤새는 날도 훨씬 더 많겠군
공강 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잠도 좀 보충해야겠군^^

그런데... 공강 시간에 가서 쉴 만한 데가 어디 있나?
관방이나 동아리방은 남자 선배들이 점수한지 오래라서 가면 불편하고, 잠도 못 자고
친구들은 공강 시간마다 중도에 간다지만, 난 거기에만 가면 잠이 쏟아진단 말이지
그리고 중도에는 마땅히 읊만한 데도 없어 가겠해야 7층 여휴 하나?
물론 ^^관에 여휴가 있긴 하지만, 너무 좁고 자리도 불편해서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
예구, 결국은 요번 학기도 눈지방인가?

지난 학기에 교양 체육 등을 찍는 힘들게 몇 시간 뛰고 나서 좀 쉬려고 해도
안락한 휴게실이라 할만한 공간이 잘 눈에 안 띄어서 피곤한 상태로 수업 들어간 적이 많았지
이번 학기에는 교양 체육을 안 넣었으니 그만큼 피곤하지 않으려나?
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점이 잘 나오지 않으니 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던걸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상대평가한다는 얘기 얼마전까지만 해도 진짜일 줄이야
한 학기동안 수업장에서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도 감수하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해

어, 그러고 보니 이번 학기에도 여성 교수님 수업이 전혀 없네
하긴, 상대대를 제외하면 우리 학교의 여성 교수 비율이 45%도 안 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여성 교수가 전혀 없는 단과대학들도 있단니, 말 다 했지 뭐
여학생들에게는 Role Model을 찾을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구나
전학이나 취업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도 조언을 구할 만한 동성 교수를 찾기 힘들고
'좋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치아공계 되는 대부분의 지식
남성 교수들에게서 전해지고 남성의 시각에서 해석되고 재편된 것이다 보니
여성의 시각에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재해석해보고 고민해 볼 여지도 줄어들어 버리고

어휴, 조금 걱정된다. 남성 교수들 중에는 이상한 말쑥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지난 학기에 내 친구 하나는 교수님이 수업들은 여학생들 기분을 생각도 안하시고
성차별적인 말쑥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한 학기 내내 짜증나서 혼났다고 그러는데 알아야
뭐 여자 행복은 그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가고 애키우며 사는 거라고 하셨단나?
세상에, 이 21세기에 그게 원 조선시대에도 가능할만한 발상인지, 나도 놀랐잖아
성폭력적인 발언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던 ABC교수님도 있었고
만약에 이번 학기에도 그런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되면 어떡하지?
수업시간에 직접 얘기하면 당장 찍힐테고, 익명으로 메일을 보내면 눈도 깜짝 안 할테고
학교에 뭔가 규칙같은 게 있을 것도 같은데... 뭘까? 뭘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까?
아,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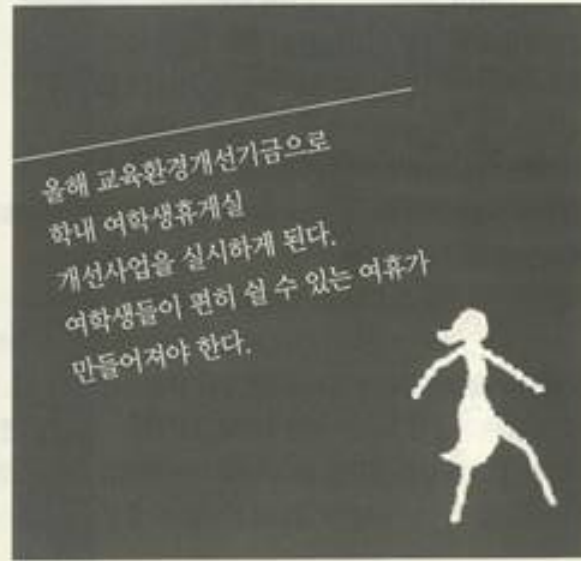
18학기를 읽든, 연세대학교 여학생들의 머릿속은 또다시 복잡해지고 갑니다.
아무리 봐도 잘 몰라지 않을 것만 같은, 심지어 때론 학기 되풀이되기까지 하는 이 당/연/한 고민들.
이번 고민들을 한방에 깔끔히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없겠지만요,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은 가능하겠죠?

여학생 휴게실, 119 구조가 필요해



학내 여학생 휴게실은 학관 중도 논지
담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단대에 위치
하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 휴게실의 기
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을 찾기란 또
잡지 않다. 관리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
고 있는 학교의 각 부서들, 그리고 과사
무실과 단대학생회 모두 손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청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힘들어지
고, 이용을 안하다보니 더 파폐한 공간
이 되 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는 어디
서부터 끊을 수 있을까.

다른 학교의 여학생들을 살펴보면 정제
되어 있던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
보자.



반성폭력 학칙, 이대로 괜찮단 말인가?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은 2000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내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성을 매개로 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킬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뿐 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성폭력 학칙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학칙에 의한 성폭력사건 해결과 정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것은 학칙의 세부 항목에 있어서 규정이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항들 중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반성폭력 학칙에서 교수 성폭력 피해자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조항도 없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의 반성폭력 학칙과 문제점 알아보기

■ 연세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 ② 제 ①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 학칙 전체에 성폭력에 대한 규정은 이처럼 간략하고 추상적이다. 반성폭력 학칙이 성폭력의 의미나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 학칙이 연세대학교 소속원에게만 적용됨으로써 가해자나 피해자 중에 어느 한 쪽이 연세대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 학칙에 의해서 처리하기 힘들다. 연세대 소속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일방에만 해당될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명시와, 그에 대한 징계도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많은 경우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한다. 신고인의 보호 조항도 들어 가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담당기관

제 1절 성폭력상담소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 (구성)

-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상담실에는 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 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벌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③ 상담실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6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연세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현재 여학생처장이 상담실장을 겸임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상담실의 독립성 확보와 상담실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상담실장은 겸임하지 않도록 임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 상담원은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학칙에는 상담원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과 일정 기간이상의 상담 경력이 상담원 임명 자격으로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1인의 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 1인의 상담원으로 학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성폭력상담실 전문 상담원을 최소 2인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6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②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단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④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필요 시 이의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 ⑦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 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단 직원과 학생위원은 정기회의와 각각 직원과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에만 참여하며, 이 경우 그 참여 위원은 재직위원에 포함된다.

→ 당연직 대책위원회에는 교무처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학칙에서는 일반교수 대책위원 임명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책위원들은 성폭력 개념과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칙에서는 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 성폭력 처리와 관련된 일정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현재 피해자 상담과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얻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대책위원들 뿐만 아니라 성폭력상담실 상담원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실 상담원을 대책위원으로 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 외부 성폭력관련 단체의 사람도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대책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대책위원회에서 학생이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책위원회에서의 학생이 동등한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지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 ①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항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이란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 ① 위원회내에 특별한 인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동성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상담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 ①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② 심의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재직된다.
- ⑦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⑥⑦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징계를 발의하거나 요구할 수만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다.

→ 징계 및 조치에는 피해자 심리 상담이나 법률지원 등의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가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 조치를 할 수 있다.

→ 성폭력 사건 공개 사과를 가해자의 사전 동의의 부분이 빠져 있을 경우에만 조치로써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전 공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측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

③ 공개사과는 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처리한 성폭력 사건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공개할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⑧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교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생 사이의 권력 관계를 고려한 별도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 때문에 피해 학생이 이후 성적이나 대학원 진학,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교수에 의한 성폭력 때문에 그 교수가 담당하는 수업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구제책으로서 학점인정이나 대체과목을 지정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 운영 개선을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이하 '반성폭력학칙')은 2000년도에 제정이 되어, 3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학생회와 여성주의 자치단체에서는, 학교 당국은 학내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성을 매개로 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킬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성폭력 학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칙에 의한 성폭력사건 해결은 과장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칙의 세부 항목에 있어서 규정이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항들 중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 성폭력 피해자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조항도 없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칙의 내용 외에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상의 문제들 역시 많은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나 감수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책위원회에 의해서 성폭력 사건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만들어졌던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학칙의 내용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학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학칙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번 공청회를 통해 냉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노력이 실질적인 학칙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주최 : 총여학생회, 사회과학대학생회, 문과대여성주의모임 모반
- 일시 : 2003년 9월 18일 목요일
- 장소 : 추후공지

교양체육, 들을 만 한가요?



여학생에게 교양체육이 어느 순간 절대적인 운동 능력의 평가와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 잘 뛰지 못하고, 행동이 빠르지 않고, 힘이 약하고, 멀리 던지지 못하고 등등. 이러한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 교양체육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 버린다. 교양체육이 운동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서 개설되는 것은 어느데도 말이다. 성적 평가가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나 그동안의 성취도 보다는 절대적인 '잘하기' 능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조건 아래서 여학생은 성적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한다. 교양체육 수업의 절대평가화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경쟁시켜서 등위를 매기는 현재의 체육 수업을 '교양체육'으로 만드는 것이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볼 때, 체육이라는 과목은 나와 그다지 친숙하지 않았던 듯하다. 교복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나가야 하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운동장을 두 바퀴 돌아야 하고, 학급 친구들과 즐겁게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구르기, 철봉에 매달리기 등 힘들고 재미도 없는 운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 어쩌다 선생님께서 자유 시간을 주신다고 해도 남학생들처럼 신나게 축구나 농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하려는 친구들도 없었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 그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학교에서의 체육 시간은 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다.

대학에 들어와서 수강신청을 하면서 체육 과목이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던 적이 있다. 중, 고등학교 때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 중에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운동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 교양 체육 과목의 장점일 것이다.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등은 비교적 대중적인 운동이어서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도 장소도 마땅치 않기에 선뜻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나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 체육은 무척 좋은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학교를 4년째 다니면서 매 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면 체육 과목을 넣을지 말지 늘 망설여진다. 타고난 운동 신경도 없는 것 같고,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체육 과목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상대평가이기에 남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을 때 좋은 학점을 받을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평가하신다는 선생님도 있다고 하고, 얼마나 수업 기간 동안 향상되어있는지를 가지고 성적 평가를 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하지만, 몇몇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학생이 몇 안 되어서 수업을 들을 때 연습할 때 위축되거나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열심히 했음에도 성적이 좋지 않아 선생님께 여쭙어보니 '상대평가라 어쩔 수 없다'라는 대답만 들었던 친구도 있었다.

수영 수업을 수강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기도 했고 다른 운동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외부 수영장에 다니려면 돈

도 들고 시간도 쪼개야 하는데, 학교에서 듣는다면 그런 문제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수영복을 입고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남학생들과 함께. 아무리 수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학생이 분명히 몇몇 없을 수업에서 말이다. 물론 학교 밖 수영장도 남녀 공용인 것은 마찬가지이나 학교에서의 분위기와는 매우 다르다. 평소에 백양로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한다면, 그 장소가 수영장이라면 상상이 가고도 남지 않는가. 게다가 한 학기동안 같이 수업을 듣는다면 내 이름이나 학년 등을 아는 것은 일도 아닐텐데.

정말 내가 들을 만한 체육 과목은 없는 걸까? 다른 과목보다 여학생이 많다는 포크댄스나 재즈댄스 같은 과목을 들어볼까? 그렇게 하기에는 억울한 감이 없지 않다. 남학생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운동을 접할 기회도 적기 때문에 잘 못 할 수도 있는데 성적 평가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잘 할 수 있는데도 수영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느끼게 될 시선과 불편함 때문에 수영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것도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운동을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여학생들이 마음 편히 교양 체육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평가 방법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면 노력한 만큼의 성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수영 수업에서 여학생만 수강할 수 있는 분반이 하나라도 있다면 불편함없이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수영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여학생은 꽤 많을테니 말이다. 좀더 방법을 궁리해 보아야겠다. 그나마 수강 변경 기간 때 포크댄스를 넣을까 말까. 에휴, 고민이다.



교양체육 절대 평가화

연세대학교에서 교양체육은 21개 과목, 120여개의 강의로 개설되고 있다. 대학에서 교양체육 수업 개설의 취지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교양체육은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체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도자적 자질과 인격 및 정신을 함양하고 생활영역을 풍부하게 하여 폭넓은 인간으로서 사회전반에 걸쳐 최대의 봉사할 수 있는 인간자세를 육성하는 데 있다. 여가시간을 가치있게 보내는 교육과 문화는 대학의 교양교육 중에서도 특히 교양체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계열 홈페이지 <http://sun.yonsei.ac.kr/~yonseipei>)

하지만 여학생에게 교양체육이 어느 순간 절대적인 운동 능력의 평가와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 잘 뛰지 못하고, 행동이 빠르지 않고, 힘이 약하고, 멀리 던지지 못하고 등등. 이러한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 교양체육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 버린다. 교양체육이 운동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서 개설되는 것은 어느데도 말이다.

성적 평가가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나 그동안의 성취도 보다는 절대적인 '잘하기' 능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조건 아래서 여학생은 성적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한다. 교양체육 수업의 절대평가화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경쟁시켜서 등위를 매기는 현재의 체육 수업을 '교양체육'으로 만드는 것이다.

교양체육 절대평가화와 수영수업 여학생 분반 개설이 필요하다. Day Dream

대학에서, 여성교수를 만나고 싶다



대학에서 '교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언제나 남성의 모습이다. 교수가 남성화된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은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모두 동일할 것이다. 이는 수업에 담당하는 교수가 언제나 남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이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과제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고 신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학문과 교육에 담당하는 지성의 공간이라는 대학 사회에서조차도 평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위에는 남성이 있어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인식은 여전히 뿌리 깊게 유지되고 있다. 비록 전체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40%에 이르고 있는 오늘날에도 '교수=남성'의 등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연세대에서 여성 교수 관련 자료를 보면(2003년 1학기) 의료원(간호대, 의대, 치대)을 제외한 전체 교수 628명중 여성교수 70명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입니다. 하지만 여성 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생과대와 음대 여교수를 제외하면, 문대·상경대·이과대·공대·신대·사회대·법대·교과대 여교수는 31명으로 전체 교수 중 여성의 비율은 5%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특히 이중에서 법대와 상경대, 경영대는 여교수 단 한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세대에서 여학생들은 그 비율이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교수가 단 한명도 없었던 법대와 상대의 경우 전체 전공 학생 중 여학생이 32%,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부과정 뿐만 아니라 대학원 전체 석·박사 과정에서도 33.2%가 여성입니다.(2002년, 여학생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학생·박사학위취득자·교수의 성별 구성비 변화에 관한 자료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대학으로의 여성의 진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학생·박사학위취득자·교수의 성별 구성비 변화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여학생 비율 (일반대)	22.3	26.5	22.5	26.8	28.5	31.9	35.8	36.3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	3.6	3.4	9.9	10.4	13.0	16.4	20.0	22.9
여성교수 비율 (일반대)	9.5	10.2	10.9	12.2	11.8	12.4	13.7	14.1

2001년까지 전체 대학에서 여학생은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박사학위 소지자 9만4632명 중 여성은 22.9%(1만4486명)를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남성 교수가 많은 이유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에 여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간강사만 보더라도 전체 4만7822명 중 여성의 비율이 37.4%(1만79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강사는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교수 비율은 2001년 14.1%(사립대

16.1%, 국공립대 8.8%)에 불과하고, 전국 대학 보직 교수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여대 보직교수를 뺀 경우 남녀공학 대학에서 여성 보직 교수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보직교수 중에서 여성은 여학생처장이 유일하고, 여성 교수 비율은 전체 사립대 평균 1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대학에 다니고, 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함이 소수의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되곤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대학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조건은 이러한 기회를 여성이 선택하는 것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여학생이 늘어나서 학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라고 말하는 남성 교수들의 이러한 성차별적인 시선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 후배 교수들에게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표] 국·공립대 남녀교수 임용현황(1997~2001)

지원자			최종임용자			임용률(%)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23,096	19,015	4,081	2,366	2,097	269	10.2	11.0	6.6

위 표를 보면 동일한 지원자격을 가지고 교수 임용을 지원하더라도 여성의 교수 임용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수 임용 과정에서 학과 남성 교수들의 의견은 '여교수를 쓰면 불편하다', '여교수는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 '대찬 여교수와는 함께 교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과 남성 교수들의 여성 교수에 대한 평가는 결국 임용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낮은 교수 임용률이 의미하는 것은 대학 사회의 뿌리 깊은 남성중심성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장치가 많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공간인 대학은 현실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 본래의 특성 탓인지 아직까지도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지난 1학기에 이루어진 학교 본부와 협의서 체결 과정에서

각 단과대학 별로 여성 교수가 20%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보직 교수 중 여성 교수 비율을 정부시행 수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요구안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여성 교수가 현재보다 80명 이상 더 채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전체 여교수 70명보다 많은 인원입니다. 특히 여성 교수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단과에서도 20%이상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측에서는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단 한명의 여성 교수도 채용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각 단과 학과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적극적인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지켜질 수 없는 약속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성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20%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채용목표제의 실시와 정책적인 지원은 대학사회의 여성배제 관행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여전히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그 래서 더욱 성차별적인 남성 중심적인 관행들이 사라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효과적인 여성 교수 채용을 위해서는 교수 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이나 실력은 무시하고 단지 성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본부와 교육부에서 그 진 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 임용과정에 불합리한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성중심적이고 서열과 학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학 문화를 바꾸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OECD 주요국가의 여성교수 현황 및 정책사례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 OECD 주요 국가들은 대학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고용의 양성평등을 위하여 다양한 여성교수 확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OECD 주요 5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웨덴)의 평균 여성교수 비율: 21.8%

■ 스웨덴의 남녀평등법

- 남녀평등법을 제정하여(89) 공공부문 여성채용 40% 목표제 및 교장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음
- ※ 96년 현재 정부지원 고등교육기관 내 여성교수 및 연구직은 31,530명으로 전체 교수·연구직의 36%
- 국가고등교육협회(National Agency of Higher Education)가 1997년에 신규교수 채용시 여성교수 비율 제고를 위한 목표설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
- ⇒ 1999년도 교수채용 및 방식에 있어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서 신규채용시 여성교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채용목표 설정

■ 미국의 행정명령 11246호(64), 노동성명령 제4호(70)

- 고용평등을 위한 법령 제정으로 대학의 고용차별 금지
- 성별 균형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의 성(性) 대표성 증진정책 시행
-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증가를 위한 목표와 지침을 수립하여 여성참여율을 최소 30~40%로 제시
- 대학 자체에서 여교수 증대를 위한 다각도의 프로그램 실시
- Harvard University: 교수집단에 대한 3개년 목표 수립(시행1997)
- 1999년 현재 전체 교수진 중 여성이 25.5% (사범대 72.2%, 법과대/보건대/디자인대 등 37% 이상 달성)
- MIT: 여교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1991)
- 여성교수진 초빙재원 확보 및 학생, 박사후 연구자 등 잠재적 여교수 인력 지원: 연간 5만달러
- 여성교수가 1/4 이하인 학과에서 여성교수 임명시 해당 학과운영비 중대최고 3만달러)
- "Ellen Swallow Richard" 교수직 확대: 탁월한 경력 여성을 교수로 발탁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수 형평성 연합" 설치
- 잠재적인 교수진이나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과소한 성, 민족, 인종을 전일제 교수로 임명하기 위한 특별재정 마련
- 과소한 소수집단 및 여성을 추가고용하기 위한 직위설치, 재정지원
- 과소대표 집단 교수들에게 연구비 지원

■ 독일의 '대학기본법' 및 '대학법'

- 1980년대에 들어와 대학내 여성의 동등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과 각 주(Land)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 각 주는 대학법 및 대학의 지침으로 이를 수행
- 연방정부는 "연구와 교사직에서 여성을 위한 기회균등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까지 교수직의 20%를 여성으로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집행 중

※ 98년 현재 여성교수는 3,592명으로 전체 교수의 9.5%

a에게는 자취하는 여자 친구들이 많다.

매일의 통근 시간에 시달리고, 맘껏 술 한번 마셔볼 수도 없고, 혹시 담배 한 개피라도 피워본 날엔 냄새가 배어 있을까 귀가 길 내내 노심초사해야하는 a.

그래서 a는 그녀들이 부럽다. 그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 없이 일상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은가.

부모님의 간섭에 대한 이런 방어적인 이유 뿐만이 아니더라도, a는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기획해 볼 수 있기를 꿈꾸며 혼자 살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부모님께 독립은 꺼내 볼 수도 없는 이야기. 독립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도 부모님은 어디 위험하게 여자 혼자.라며 만류하실 텐데. 그럴 돈이 없는 자금 상황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b는 대학 입학 이후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다.

혼자 살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마냥 신나거나, 혹은 아무도 없는 빈방이 익숙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좌충우돌, 깜짝하고 가스비를 내지 않은 탓에 도시가스 공급 중단 고지서가 날아온 것도 여러번이었고, 깜짝거리는 화장실의 전등을 한달 내 방치해 둔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자취 2년차. 조금씩 집안일을 건사하는 데에도 익숙해 지고, 혼자 살기가 허락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만끽할 줄도 알게됐다.

하지만, 위험과 불면은 여전히 있다. 자취촌에 떠도는 갖가지 성폭력 사건의 풍문들, 집세와 용돈의 이중부담, 자취집이 기 때문에 지하철이 끊긴 시간의 술자리에서 사람들의 속소는 의례 b에게 떠밀려 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독립은 어느새 선망의 대상이 된다. 부모님께 이해받을 수 없는 것들이 늘어가면서, 간섭을 피해 나만의 생활이 펼쳐질 분리된 공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조금씩 쏠린다. 하지만 다른 지방으로 학교나 직장을 얻어 자연스럽게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성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또한 집안과의 오랜 투쟁 끝에, 혹은 자연스럽게 라도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여성들에게는 갖가지 새로운 상황들을 닥치기 마련. 가족중심주의와 가부장중심주의가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기까지 하다.

이 때 필요한 것은 혼자 살기가 여성에게 주는 여러가지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일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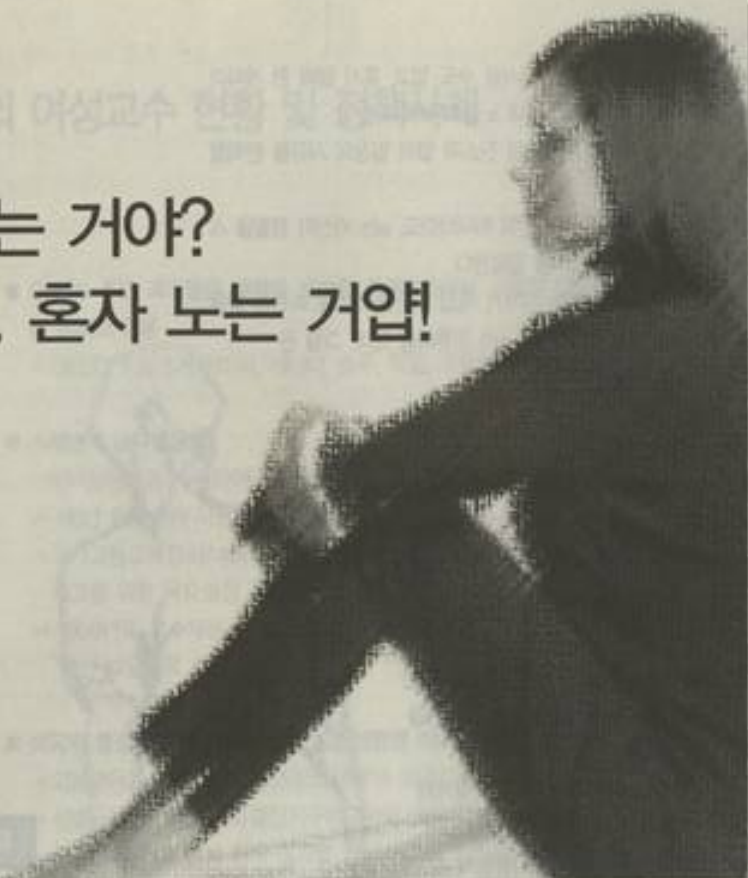
혼자 사는 여성의 경험을 여성의 언어로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혼자 살고 싶은, 혼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살기로 성장해가는 여성, 혼자 살기로 위협받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끼리의 수다처럼, 친구에게 듣는 조언처럼.



특집 |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

혼자 버티는 거야? 아니. 혼자 노는 거야!



(아바)해경 (여성학 전공,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삶의 방식 중 하나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닐까 한다. 대개의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의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 가정 안의 존재로 상상해 온 우리 사회에서 독립은 여성과 순조롭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삶은 더 이해되지 못한다.

집에 가면 뭐 해요? 심심하지 않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다 하려면 바쁘다구.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은 집으로 돌아가면 가사노동으로 허덕일 것이라고 모두들 상상을

한다. 다른 가족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가사노동 또는 노동력재생산은 필요 없다는 건가? 빨래량과 쓰레기량이 적기는 할 테지만 온갖 집안정리부터 쓰레기 버리는 일, 자잘구레한 집안 수선 등등 모두 혼자 하느라 얼마나 바쁘겠나)

집에 누가 기다린다고 일찍 가요?

(나 없는 사이 내 집을 점령한 각종 벌레들, 그리고 설거지, 빨래, 쓰레기 등등이 어두운 집에서 날 기다리고 있지 일찍 가서 처리하지 않으면 인생 좀 괴롭지. 그게 아니라도 집에 얼른 가서 샤워하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내일을 위한 준비도 하고 좀 쉬고 싶다구. 당신이 그렇듯이)

밤에 외롭지 않아요?

(밤에는 즐겁다. 이것보다 명백한 진리가 또 있는가?)

혼자 잘 지내는 것 같으면 또 어떻게든 묻는다, 독신주의시냐고?

글쎄. 거기에 뭐 주의까지 필요할까마는... 그럼 당신은 결혼주의이신가?

흔히 결혼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유별난 설명이 필요 없고 혼자 사는 것은 대단한 명분이 있어야 할 정도의 특이한 일로 여긴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결혼중심주의자, 줄여서 결혼주의자인 셈이다.

좀 독특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면서 공감을 나누려고도 한다. 결혼제도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혼자 살려고 했겠느냐 결혼제도에 문제가 많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혼자 살거나 혼자 사는 여러 이유들 중에 이것도 포함되는 경우는 많을 것이다. 특히 여성이라면, 그렇다고 혼자 사는 이유나 그런 삶의 형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결혼할 수 없는 모든 이유들을 다 참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문제는 어떤 결혼에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 다 적용되는 경험을 꼬집어낸다는 건 때려잡아도 계속 머리를 들어올리는 두더지 잡기보다 더 부질없다. 전략을 바꾸어서 추상적인 차원에서 모든 결혼에 공통될 그 가부장적 권력 관계 운운하다 보면 이야기는 어려워져 이해를 받는 일은 더 멀어진다. 오히려 지나친 일반화 또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박에 빠진 사람으로 보이기 쉽다.

문제는 그렇다. 왜 굳이 혼자 사느냐고들 묻는데 굳이 혼자 살면 안 되냐? 애인도 없으면서 결혼한다고 몇 번씩 선보고 소개팅하고 난리치다가 가족의 노고와 재정을 알뜰히 바닥내면서까지 굳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안 이상하고? "결혼은 정상이고 혼자 사는 것은 비정상이다"라고까지 하는 하지 않더라도 "결혼은 최선이고 혼자 사는 건 어디까지나 차선이다"라는 식의 서열적 구분은 많은 이들의 생각 바닥에 깔려 있다. 혼자 사는 것이 차선이라는 관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혼자 사는 삶

에는 남들처럼 못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라는 식의 열등의 꼬리표가 항상 붙어다닌다. 단지 기호의 차이일 뿐인데 그걸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워들 한다. 결혼하는 건 좋아할 수 있지만 혼자 있는 걸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냐고? 혼자 호젓하게 지내는 것, 남과 협상이나 경쟁하지 않으면서 자기 좋대로 사는 것, 싸우고 화해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지내는 것, 무엇보다도 침묵할 자유와 무한히 즐길 수 있는 조용함, 그런 것이 즐길 만한 것이 못 된다니? 물론 그러려면 결혼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애기가 이런 식의 이유대기로 가다 보면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진위를 가늠할 수 없으려 너무 많이 들었던 자연주의적 장광설이 이어지기도 한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애정의 욕구와 성욕이 있으며 남자와 여자가 있는 뜻은 서로 @#%\$!&~*!"

듣고 있으면 혼자 사는 사람은 인간기피증 환자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인 것 같다. 그냥 듣고 있지 않고 여기에 반박 설명을 붙이면 사태는 더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나도 연애해 봤고, 사람 잘 좋아해요. 성욕도 있고 뭐... @@* - -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정말 다르다. 남자는 얼마든지 이런 사실을 담백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가, 그것도 남자가 낯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녀는 좌중의 남자가 그녀의 흐트러진 침대를 상상하면서 낮을 불히더라도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품위가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를 잠시라도 계산해야 한다. 애시당초 혼자 사는 남자는 냉혈한으로보다는 심한 바람둥이로 상상되거나, 성불구자나 지나치게 수줍음을 타서 여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불쌍한 남자로 동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명을 해야

문제는 그렇다. 왜 굳이 혼자 사느냐고들 묻는데 굳이 혼자 살면 안 되냐? 애인도 없으면서 결혼한다고 몇 번씩 선보고 소개팅하고 난리치다가 가족의 노고와 재정을 알뜰히 바닥내면서까지 굳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안 이상하고?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혼자 사는 사람은 이렇듯 왜곡과 편견으로 인해 오해 당하면서도, 혼자 사는 삶의 경험은 곧잘 '경험 아닌 것'이 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세파에 시달리지 않았으니까, 어린 아이와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은 희생적인 어머니나 아내상과 대립적인 이미지로 상상되기 때문에 더욱 이기적인 인물로 매도된다.

이기적인 여자를 공주병 환자라고 부르는 유행이 있으니 혼자 사는 여자는 공주병 환자로 분류되기도 쉽다. 이런 구도에서는 갑자기 결혼이 이타적인 일로 둔

결혼하는 건 좋아할 수 있지만 혼자 있는 걸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냐고? 혼자 호젓하게 지내는 것,
남과 협상이나 경쟁하지 않으면서 자기 좋대로 사는 것,
싸우고 화해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지내는 것,
무엇보다도 침묵할 자유와 무한히 즐길 수 있는 조용함,
그런 것이 즐길 만한 것이 못 된단다?

갑해 버린다. 결혼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좋으니까 해야 한다더니, 갑자기 웬 비장함인지 모르겠다. 결혼하는 것은 언제는 자연이 지시하는 일로, 또 다른 때는 도덕이 지시하는 일로 정당화된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그에 따라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다가 부도덕한 것이 되다가 멋대로 평가된다.

혼자 사는 삶은 비경험 또는 무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는다. 나름대로 지레짐작 해 버린다.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외롭다는 세상살이의 너무나 평범한 문제거리들조차 혼자 사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이 모두 결혼을 안 한 탓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여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궁핍하다는 것은 생계 부양자인 남편이 없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외롭다는 것

은 성욕 때문에 무슨 염기적 발광이라고 치고 싶은 상태라고 상상들을 해대기 때문이다. 그것도 남편이라는 성적 파트너가 있으면 해결될 거라는 거다(으음, 정말?) 그래서 궁핍과 외로움의 경험을 단지 같이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나누려는 기대로 꺼낸 말에 즉각 답이 선고되는 횡포를 경험하곤 한다. "그러니까 결혼 해." 결혼한 사람들도 궁핍하고 외롭다고 곧잘 말한다. 그들의 궁핍과 외로움만이 인간이 세상살이에서 부딪히는,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심지어 공감해야 할) 궁핍과 외로움 그 자체로 여겨진다.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기혼자들을 자주 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결혼중심주의의 약화를 증명한다고 보는 데에 이의가 없지만, 이런 사람들 중

에도 자기가 결혼중심주의자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 어떤 솔직한 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자신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데도, 결혼 안 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그(녀)와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을지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찾게 된다고, 아니 자신이 그러고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된다고. 그러니, 세상이 달라졌다면 과거에는 자신이 결혼중심주의자인지 알고

있는 결혼중심주의자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자신이 결혼중심주의자인지 모르는 결혼중심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긴,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안의 결혼중심주의와 얼마나 오랫동안 싸우게 되는가. 결혼중심주의는 그토록 뿌리깊어서 자주 은밀하고 집요하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문화권에서는 결혼 안 한 것은 혼자 사는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쓰일 수 있지만, 우리 형편은 그것 둘을 구분해야 한다. 혼자 사는 것은 단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다. 가족 연구 분야에서는 인간의 가족주기에 혼인 전 독신기 개념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몇 살이 되었든, 결혼하기 전에는 독립하지 않기 때문에 혼전 독신기라는 것이 없다. 출가 아니면 가출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독립

은 곧 성적 타락이라고 보는 한국 사회에서, 딸의 순결을 감시하려는 부모들은 아들보다는 딸의 독립을 더 부정한 모의로 여긴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은 일종의 타협의 산물로 이루어진다. 딸의 독립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성적 타락을 감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모에게 양도하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정하는 지역에, 부모로부터 자금을 얻어 혼자살이를 시작한다. 이런 경우 사는 동안 내내 부모의 권력과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자칫 잘못했다면 돈을 모두 반환하고 거리로 나왔거나(이렇게 하면 부모는 부모와의 의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다시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 조용히 지내야 한다. 독립은 나라나 개인이나 자기 힘으로 해야 뒷말이 없다.

그렇더라도 독립은 잠정적인 것으로만 여겨진다.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혹은 다른 기타의 사유 때문에 자녀의 독립을 허락한 부모도 언젠가는 다시 자녀가 집으로 회귀할 것을 기대하고 시시때때로 요구한다. 나이 많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도 자취한다고들 한다. 자기가 밥해 먹고 다닌다는 점에서 자취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청년시절의 하숙살이와 비슷한 임시적인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다.

넓은 아파트에 기혼자들의 집안 꾸미기와 비슷하게 차려놓고 살아야 비로소 자취보다는 혼자 사는 것으로 판정되기도 한다. 이걸 혼자 살기가 '구질구질한 커플보다는 우아한 싱글이 낫다'는 이상한 대비에 발목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걸 나쁜 것(구질구질함)보다는 좋은 것(우아함)이 낫다는 말과 같기에 이상한 대비이고, 아니면 구질구질한 커플과의 비교우위를 주장해야 할 만큼 싱글의 삶이 열등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으니 또한 이상한 대비이다.

이게 문제인 것은 우아하게 살지 않을 바에는 싱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

다. 이런 생각이 싱글이라면 대개 통과하게 될 빈곤의 과정을 건너뛰고 싶게 하면서 의존적인 독립이라는 이상한 상태를 낳는다. 빈곤을 건디며 소박한 삶의 철학을 추구하는 싱글들에게 난데없이 부르주아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이런 편견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인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는 여성노인인구가 단연 많지만, 젊은 층에서도 여성 일인 가구가 남성보다 많다. 혼자살이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해되기 어렵다. 혼자 사는 남자와는 달리, 혼자 사는 여자는 수녀와 마녀의 양극단의 이미지를 감당해야 한다.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근대 개인의 독립은 남성성과 연결된 개념이어서, 여성의 독립은 부인되고, 독립적인 여성은 위험한 존재로 여겨진다. 혼자 사는 여자가 혼자 버티는 독한 여자로 여겨지는 건 이런 이미지의 다른 판형이다. 혼자 사는 여자는 결혼생활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며 키우는 즐거움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혼자 사는 남자와는 달리, 혼자 사는 여자는
수녀와 마녀의 양극단의 이미지를 감당해야 한다.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근대 개인의
독립은 남성성과 연결된 개념이어서, 여성의 독립은 부인되고,
독립적인 여성은 위험한 존재로 여겨진다.

여성으로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



본격 독립 자취 1개년 보고서

2년간의 자취, 그 생각의 단편들

혼자 사는 여자

내가 혼자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본격 독립 자취 1개년 보고서

바닥을 드러낸 썰렁....
비어만 가는 냉장고....
수북이 쌓여있는 각종 연체 고지서들....

.....
지갑엔 얼마 남지 않은 약간의 생활비.....

철이 들면서부터 독립을 꿈꾼 지 어언 십수 년, 본격적 의미의 독립 - 그야말로 오묘한 나만의 공간을 마련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자기만의 방을 꿈꾸는 누군가가 그렇듯, 아침을 깨우는 고운 햇살, 달콤한 토스트와 감미로운 커피향, 컵가를 간질이는 아름다운 음악소리로 시작하는 하루를 상상했건만 26세, 비혼의 여성에게 펼쳐진 현실은 그와는 사뭇 다르다. 더군다나 학생과 직장인의 중간, 전문 용어로 백수(---)에겐 더욱 그러하다.

처음으로 혼자 살아가려니 드는 돈은 왜 그리 많은지 아무리 마음이 부자라도 전기와 가스, 냄비 몇 개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게다가 요즘같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인터넷은 기본이요, 약간의 문화생활은 필수이니 이 쪼그만 공간에 내 한 몸 발붙이고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열심히 해봐야 평균유지, 조금만 소홀히 해도 티 팍팍 나는 가사노동처럼 기본적인 것만 유지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뼈까하고 뻥뻥한 수많은 집 가운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티도 안 날 자기만의 방 하나를 갖기 위한 경제적 어려움들은 비혼의 여성으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부딪쳐야 할 현실의 축소판인 것이다.

꿈을 좇고 있는 건지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근 1년째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지만 이름 되면 갈래갈래 생각이 많아진다. 수많은 꿈을 펼쳐놓고 자신감에 차 있던 그녀들이, 팍팍하기만

한 현실에 부딪치고 흔히 말하는 결혼 적령기의 압력이 안팎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왜 결혼이라는 선택지(?)에 동그라미를 치게 되는지....한편으론 그 심정이 이해가 가고 나 역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어디든 취직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요즘 갈아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여자 친구들도 떠오르고 언젠가 돈 많~~~이 벌면 여성 공동체 마을, 아니 작은 집이라도 지어야지.....상상의 나래도 펼쳐본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나만의 방을 갖기 위해 앞으로도 수없이 쪼들리고 힘든 선택들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만의 방, 아니 세상 모든 그녀들의 방이 팍팍하고 짜증나는 일투성이인 세상과 맞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또한 훨씬 대낮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부터 어두운 골목길까지 여자로 태어났기에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이 사회에서 그나마(그다지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 긴장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쉼터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세상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은 꿈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채워나가고 충전시키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하여 바라건대 자기만의 방을 꿈꾸는 여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그리고 이제 막 짐 싸들고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독립의 길로 나선 그녀들 에겐 용기와 격려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짓고 있을지 모를 나의 동지들에게 본드보다 더 끈끈한 애정과 팔뚝수만큼 시원~한 웃음 한 사발을 보낸다.

by 이안

이 세상에서 온전한
나만의 방을 갖기 위해
앞으로도 수없이 쪼들리고
힘든 선택들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만의 방, 아니 세상 모든
그녀들의 방이 팍팍하고
짜증나는 일투성이인 세상과
맞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2년간의 자취... 그 생각의 단편들

자취생활 2년차. 이젠 내가 자취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특별히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듯하다. 가끔 집에 내려가면 심년을 넘게 살아왔던 그 집이 왠지 낯설게 느껴져 어서 지금 살고 있는 자취집에 가고 싶어 하는 일도 종종 있고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익숙함을 가지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겪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의 변화를 경험한 것도 사실이다. 부모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생활을 꾸려간다는 것은, 얼마간의 자취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하다.



자취생활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생각은 '가사'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취를 해 본 이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사일은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납부해

야 하고, 생활용품들을 제때 구입해 놓아야 하며, 가끔은 생활비도 계산해야 한다.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온전히 나의 관리 하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관리'라는 것의 많은 부분이 가사일, 즉 살림으로 채워진다. 여러 식구가 사는 집의 살림의 규모와 비할 것은 못 될 테지만, 작은 규모 이거나 살림을 함으로써 나의 생활의 토대가 되는 공간을 살리고, 그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 종종 귀찮고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살림'을 함으로써 나의 방, 나만의 공간에 대한 애착은 알게 모르게 커져가는 듯하다.

자취라는 것은 '생활의 공간'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혀 새로운 환경이니 만큼 여러 가지 생활 정보가 필요한데, 낯선 도시, 낯선 동네에서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정보들을 발견해야 하고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심을 키워가는 훈련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독립'을 말할 때 '경제적'인 것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8개월 정도 월세를 내가 직접 내면서 살아본 적이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보증금은 내지 않아도 되었었다.) 그리고 용돈도 직접 해결했다. 물론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생각해 보면 그 때만큼 마음이 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꾸렸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 주었고, 아직도 그 경험은 나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부딪혔을 때, 자취는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다. 자유로웠던 8개월, 당시의 공간은 반지하의 조그마한 방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상한 취미를 가진(?) 남자들의 '홈쳐보기'였다. 나는 그들의 홈쳐보기에 매우 시달렸고, 종종 그것은 '공포'로 다가왔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질린 채 경찰을 부른 경험도 있었으니.

지금은 동생과 함께, 2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겪었던 '사건'들과 같은 어려움은 거의 없지만, 아직도 자취생들이 많은 동네를 지나갈 때면 혹은 반지하방을 볼 때면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라 덜컥 겁이 나거나 그곳에 살고 있는 여학생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된다.

나의 자취방에서 이 글을 쓰면서 방을 한번 둘러보니 느낌이 새롭다. 오롯이 나의 의지, 나의 감각, 나의 애정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 자취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 공간이 있기에 웃을 수 있다. 이

제 겨우 2년이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게 된 것이. 앞으로는 또 어떤 경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by 생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사는 게 가장 서러워(?)질 때, 혼자 사는 게 가장 궁색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 보통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려 애쓰다 보면, 몸이 아플 때? 맛있는 것이 먹고 싶은데 요리 실력이 없음을 탓하면서 그저 라면으로 때워야 할 때?

집을 떠나 이제 타지 생활에 적응을 해 온지도 어언 6년차가 되었다.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 나의 몸을 의탁해오며 살아온 20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6년이란 시간 또한 그리 가볍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동안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에 외로움에 혼자 공공 앉았던 시간도 있었을 테고, 엄마가 맛있게 해준 된장찌개와 적절히 간이 잘 배인 두부조림을 그리워하다 동네에 있는 분식집서 3000원 짜리 된장찌개를 사먹기도 했었을 테고, 밥을 잘 안 챙겨먹다 유독 환절기에 단골손님처럼 찾아오는 감기로 자취방 바닥에만 붙어있기도 했을 테고...

처음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는, 마치 잠시 집을 떠나 수학여행 정도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도통 기숙사가 정이 들지 않았다. 몇 달 전만 해도 나와 함께했던 내 침대, 내 손때가 묻은 책들, 내 방을 나가면 엄마가 밥하시는 맛있는 냄새... 가정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 따뜻함이 못내 그리웠고 이

제는 나에게 없을 그 '부족함'에 대해서만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어느새 "혼자 사는 것이 어머니?"라는 물음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을 보니 나도 어지간히 이 생활에 익숙해진 듯 하다. 오히려 일년에 두세번 가는 집에서 낯선 느낌을 받게 되니, 아마도 '여기가 미운 정 고운 정 든 내 집이 맞다'고 새삼 느끼기도 한다. 처음 집을 나와서 살게 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떠올려보면, 아플 때 누군가가 돌보아 주고, 무언가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주었던 '엄마'의 부재가 그 주요요인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스스로 조금씩 엄마로부터 독립해 나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아플 때는 혼자 알지 않고 의료보험증 끊어서 병원도 부지런히 다니고, 이제는 경제적인 독립도 일구어야 할 나이에기에 아직 변듯한(?) 직장은 없지만 그러저럭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내 수입에 맞게 지출을 짜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사다놓고, 화장실이며 싱크대며 정기적으로 청소해주고 등등.

이렇게 발전한 나를 보면 새삼 대견스럽기도 하고, 가끔 그렇게 '공짜'로 무언가를 얻게 되면 참으로 고맙게 여기게 되는 마음도 생겼다. 내가 공짜로 먹게 되는 밥이, 혹은 유무형의 무언가가 그저 아주 쉽게 생기는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수고로움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편해진 혼자인 생활에서의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밥을 해먹고, 아플 때 스스로 몸을 추스르고 하는 일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다면, 나는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를 주고 싶다. 독립을 배워나가고, 삶에 대해 배워나가는 데에 자기 일생에서 '혼자 살아보는 것'도 참 괜찮은 코스라는 생각이 든다. 부족한 20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바람과 기대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싶다.



들은 그저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가끔씩 느껴지는 혼자
인 느낌, 둘이나 혹은 셋,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산다면
훨씬 절약될 생활비, TV며 비디오며 함께 보면서 느끼
는 재미들...같은 것들에 대한 욕망이다.

한달 인터넷비, 전기세, 가스세, 식료품비가 반으로
쪼개질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운 좋게 살텐
데, 혼자 먹는 밥보다는 둘이 먹는 밥이 더 맛있을텐데,
재미있는 비디오를 밤새 함께 보며 시원한 맥주를 마시
고 오징어 한 마리 뜯는 것도 좋을텐데... 라는 생각. 어
쨌든 둘이나 셋이 살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불편함도 생
기게 마련이겠지만 지금은 그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
다는 것이 오히려 삶의 활력소라 믿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다
면, 나는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를 주고 싶다. 독립을
배워나가고, 삶에 대해 배워나가는 데에 자기 일생에서
'혼자 살아보는 것'도 참 괜찮은 코스라는 생각이 든
다. 부족한 20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바
람과 기대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싶다. 그 바람과 기대
로 오히려 나는 120점 만점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일지
도 모르겠다.^^

by 북송아



내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나는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혼자 살게 되었다. 엄밀
히 말하자면 기숙사 한 학기 룸메이트와 살았고, 이후
고시원 생활 한 학기를 거쳐서 혼자서 자취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한지 3년
반이 되 가고 있다. 그간 혼자서 살면서 좋았던 점도 많
우 많겠으나, 불편하고 괴로운 경험도 꽤나 많을 수밖
에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젊은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꽤나 일찍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혼자 산다
는 사실을 알리
는 것을 꽤나 꺼
려하는 편이다. 함
께 지내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가능

한 굳이 알리려 하지 않는다. 예전에 살던 집은 무척 학
교와 가깝고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신촌에서 술을 먹고 놀다보면 집 근처에 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굳이 그 놀
던 장소에서 집으로 뺄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큰길가
까지 같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유는 내가 사는
공간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내가 혼자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와 내가 사는
곳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 어찌보면 당연하다.

큰 포부(?)와 희망(?)을 안고 시작한 독립생활을 술
취하고 딱딱 시간 놓쳐서 집에 못 들어가는 이들에게
쉽게 침범당하고 싶지 않았음이 가장 일차적인 이유였
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친하지 않은
이(= 믿지 못할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접적인
위협 가능성과 함께 어떻게 나를 바라볼지 모르는 일이
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오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들을 많은 남성이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이지 않게
갖고 있는 것 같다. 혼자 사는 여성은 집에서 무척 심심
할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자기가 놀아줘야 한다는 이
상한 사명감. 당연히 혼자 살기 때문에 정해진 귀가 시
간은 없다는 생각. 밤늦게 전화를 해도 예의에 어긋나
지 않는다는 생각. 언제든 집 앞에 찾아가면 나올 수 있
을 것이라는 생각. 모든 혼자 사는 여성들이 이렇게 알
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정한 귀
가 시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집에 들어와서는 나만의

시간을 오롯이 가지고 싶다. 누구든 불러만 주면 5분
이내로 달려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
성원은 나뿐이지만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것이다.

혼자 살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해물들인 부모를 비롯
한 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을 수
도 없고, 열려있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이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오해 외에도 보다 더
혼자 살을 고달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통제 범
위 내에 있어야 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독신, 독거라
는 행태를 통해서 이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
는 것들이다. '자취'라는 주거 행태를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기숙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지 돈이 덜 든다는
것이나 하는 이유는 아닐 것이다. 기숙사가 더 안전하
다고 여기는 데, 그 안전함이란 매우 이중적이다. 외부
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과 사실 기숙사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늦은 시간 술 취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신촌 거리나, 산 속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 기숙사 가
는 길이나 별로 다를 바 없다. 기숙사방마다 있
는 전화로 음란전화도 심심치 않게 걸려오고
있으며, 여자동의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몰래 엿보
는 남학생들도 있다. 딸의 순결(?)을 지키고, 결
혼 전까지 한 티의 오점 없는 과거를 만드는
데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아주 자
주 하시는 말 두 가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내가 남자만 돼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 남성의 성경험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
라는 말을 남자는 강도나 도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는 것처럼 바꿔서 하는 말

"너를 믿고 자취를 하하니 처신을 잘해라"

← 처신이란 단지 밥 잘해먹고, 관리비 잘
내고 분리수거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학교와 집
이 통학하기 힘들다는 이유는 내가 혼자 사는 것에 있
어서 많은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그러나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혼자 산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
다. '결혼'이라는 것의 '적령기'가 되어도 그러하고,
그것이 지나가도 그러할 것이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
성은 어딘가 수상하다는 생각들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지금이다.

ps

'독신녀'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혼자 몸(인)사는 여자
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회적으로 성적인 환기를 일
으킨다. 누구에게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 아빠 혹은
남편- 누구도 가질 수 있고 넘볼 수 있다는 생
각.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는 생각. 독신녀를 성적억압주의자와 프리섹스주의
자의 양극단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은 혼자 사는 여
성을 성적으로 과잉 혹은 결핍으로 내몬다. 이는 이
들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싶
은 음모가 아닐는지.

by 에블린트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오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들을 많은 남성이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이지 않게 갖고 있는 것 같다. 혼자 사는 여성은
집에서 무척 심심할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자기가 놀아줘야 한다는
이상한 사명감. 당연히 혼자 살기 때문에 정해진 귀가 시간은 없다는 생각.
밤늦게 전화를 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

'혼자 삶'을 자기 것으로 떠안은 네 여자의 수다

혼자 살기 언제? 자유로워 보인다고? 맞아 자유롭지.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받아야 했던 가족 안의 생활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워. 하지만 처음부터 혼자서 잘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어리버리했던 시절,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위협과 격어야 하는 불편, 그리고 혼자 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것들. 혼자 살기는 이런 것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이라고.

사실 난 내가 혼자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의미를 알아내야 할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당연한 듯 혼자 치어있었던 거지. 그러나 혼자 산다는 것, 더구나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특별한 일일 수밖에 없어. 너의 혼자 살을 돌아봐. 그리고 함께 얘기 나눠 보지 않을까? 경험 나누기 속에서 더 나은 혼자 살을 모색하기 위해서, 혹은 혼자 살면서 겪었던 해결책 없던 억울함과 불편함에 대해 한바탕 한풀이라도 해보자구.

'혼자 삶'을 자기 것으로 떠안은 네 여자의 수다

- 만담중, 날죽여, 동네, 또또가 MSN에서 만나다.

7 처음 집을 나와서 - 두려움과 자유로움

날죽여> 그럼 어떻게 독립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하자. 난 집이 지방이라 대학 오면서 당연히 나왔지. 처음엔 가족사에 살았어.

만담중> 나두 처음엔 가족사에 살았어.

동네> 나도 집이 대구라 자연스럽게 독립했는데.

날죽여> 1학년 1학기에 가족사에 살았는데, 매우 좋지 않았지...[^] 2 학사가 사실이 좋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친구랑 좁은 방을 같이 쓰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 혼자만의 공간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게지. 밤에는 특히나 더 그렇고.

동네> 고향에선 혼자만의 공간이 있었어?

날죽여> 내방. 난 초등학교 때부터 내 동생이랑 다른 방 쓰게 해달라고 간간 투쟁을 하여서 내방이 있었거든. 문도 잠궈놓고 다녀서 엄마한테 맨날 혼났어.

만담중> 옛 우리 자매도 그랬는데. 문을 잠근 건 아니고, 자기방 갖겠다고.

날죽여> 자기방이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동네> 흠, 하지만 공간적인 의미의 자기방보다는, 룸메와 같이 살고 있지만 부모님의 간섭이 없는 지금의 방이 훨씬 자기만의 공간이잖아.

날죽여> 응 그렇지.

만담중> 난 가족사 재밌었는데. 일단 집 나온 것이 좋아서 가족사든 어디든 다 좋았을거야.

동네> 맞아. 한데 난 처음엔 생전 처음 온 서울에, 이 방에 나 혼자 뿐이라는 생각에 짓눌려서 많이 힘들었는데.

날죽여> 난 딱 하루 그랬어.

만담중> ㅋㅋ

날죽여> 그런 건 있었지. 이제 정말 내 몸 내가 건사해야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혼자 죽어도 내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

7 혼자 살면서 얻은 것 아니 - 일상의 자유로움

동네> 혼자 사는 게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일과를 간섭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

날죽여> 응. 부모와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 내 행동에 제재가 덜하게 된 게 좋지.

또또> 늦게 들어가거나, 머 그런거.

날죽여> 누굴 만나든, 무얼 먹든, 담배도 피고, 아프지만 않으면 행복하지.

동네> 맞아 집에서 살았으면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을걸.

또또> 담배? 꿈도 못꾸지.

동네> 혼자 살다가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불편하듯, 혼자 살면서 자기만의 생활방식이 생긴 것 같아.

또또> 그렇지.

동네> 나의 경우 그것은 게으르게 살기이지...^{^^}

또또> 밤에 늦게 자가~

만담중> 응 게으름과 밤 늦게 자가는 맘먹으면 잠에서도 할 수 있긴 해.

또또> 근데 부모님의 간섭이 조금은 있잖아.

7 혼자 살면서 얻은 것들 - 생활을 책임지기, 엄마의 가사노동에 대한 세심스런 자각

날죽여> 앞에 나왔던 얘기들 있잖아, 집에 늦게 들어가서 좋다. 술마시고 담배 피워도 간섭이 없다. 그런 것들이 '혼자 사는 것의 1차적 효용'이라면, 거기서 좀 나아가서 자기 살을 책임져 나가는 것,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세.

만담중> 살을 책임져 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을 책임져 나간다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또또> 난 말이지,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다는 결심이 늘 있어와서 그런지 대학 와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 독립하게 될 생활을 준비해 왔던 듯 해. 집에 혼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지. 머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전등을 갈아 끼우는 것이나,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 살펴보는 것, 지금 생각해 보면 자취하기 전엔 혼자 사는 것이 엄청난 일인 것 같았는데. 예를 들어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건 어떻게 내야 하나. 근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어느새 그걸 잘 하고 있는 내가 되어있는 거지.

동네> 나도 동갑. 생활을 책임져 나가게 되지.

또또> 그리고 빨리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할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밤낮으로 방 뒤편 엄마도 이해하게 되지.

날죽여> 하긴 집 나와서는 엄마 가사 노동력 착취 안 한다는 생각을 들어. 고등학교 때까진 엄마가 다했으니깐, 지금도 그렇잖단만...[~]

동네> 맞아. 그래서 요즘 집에 내려가서 다시 그런 장면을 마주하면 너무나 송구스러워.

날죽여> 마저 세심스럽게말아.

또또> 나 예전엔 집에 내려갔을 때 엄마가 나가면서 청소 좀 하라, 길래 오랜만에 내려온 말한테 청소시켜놔야 했었다...[~] 싸가지없기가 하늘을 찔렀었지.

만담중> 저런.

또또> 그때 생각하면 정말 엄마한테 죄송하지. 내가 안하면 결국 엄마일텐데.

7 그러나 우리는 독립한 것이 아니다... - 공간적으로 독립했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지취생이 받는 압박

만담중> 난 2학년 1학기까지 가족사에 있다가, '가회'를 맞아 자취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너무나 가족사를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 나도 교문으로 학교를 들어오고 싶다는.

남죽여) 그해

만담중) 어쨌든 그래서 부둣가에서 우기며 자취를 시작했지 대신 내돈으로 월세 내면서 π π

동 네) 힘들었겠다

만담중) 응. 빠듯 하지만 뭐 그 정도로 나오고 싶었으니 처음엔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빈집에 들어가기 싫어했단 것 같아 무척이나. 정말 '혼자' 인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으니 혼자 많이 익숙하지 않았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만의 시간이라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았을텐데 그 때는 그럴 만큼 크지도 여유가 있지도 않았던 것이지

동 네) 난 지금도 혼자만의 시간에 뭔가 즐거워했다는 생각을 못하겠어 혼자서 가만 생각하다보면, 이 모든 게 내 부모의 경제력에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나. 정착 하지는 못하고 사달리기만 하는 일과가 반복되곤해

만담중) 자취생이 받는 스트레스의 큰 요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동 네) 맞아.

만담중) '독립'이라고 하기 뭐한.

남죽여) 나중엔 답이 안 나와서 포기하게 되는 문제이지

동 네) 그렇지

만담중) 8개월 동안 내가 월세를 내며 살던 동안에는 정말 정말 마음이 편했어. 그 돈 문제라는 것이 정말 그러더라니까 '독립'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던 게 그 때였단듯. 지금 사는 집은 그나마 엄마가 다시 돈을 내고 있지 --

남죽여) 월세 내고 용돈은 안 받았어?

만담중) 응. 엄마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받은 적은 대학 와서 한번도 없어요

남죽여) 과외를 계속 하는구나

만담중) 응. 끊임없이

동 네) 이런 부분에서 나는 마음 불편해 하면서도 참 편하게 의존하고 있지. 또로는 집세랑 용돈 어떻게 해결해?

도 도) 나는 언니와 함께 사는 관계로 집세는 언니가 전액 내고, 내 용돈은 그냥 내가 과외해서 충당해. 집에서는 생활비 10만원 받고

동 네) 다들 용돈은 버는구나

도 도) 근데 머 빠듯해 1학년 때는 집에서 용돈 받다가 2학년 때 과외 구하면서 안 받았는데 3학년 때 과외 그만두면서 다시 돈을 받았었거든 무척 편하더라구. 근데 엄마가 혼자 힘으로 살려면서 돈을 안주시겠다고 했었지 그 이후로 안받는거야. 요새는 그냥 비정기적으로 가끔 받고

만담중) 음... 강한 어머이

7 자취방, 부모님은 없지만, 가끔은 그래서 더욱 오여되는 공간

남죽여) 나야 궁금한 것이 있어

만담중) 언제?

남죽여) 지속적인 애인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자취를 하면 그 집이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

만담중) 그럼그럼 --

남죽여)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안 좋은 정도 많은 듯. 자기 방과 관련하여 애인과의 스킨십을 포함한 모든 상관관계에 얽힌 불편함이 남들도 있나해서.

만담중) 있지 그런 불편함. 백번동감 --

도 도) 집이란 공간에서 애인과 같이 있는 것은 참으로, 편하면서도 조금은 불편한 무언가가 있는 듯 해

만담중) 와니와 존하 생각난다 --

동 네) 그런데 애인과 내 방에 있는 상황에서 스킨십 때문에 불편해진다면 그건 의사소통의 문제 아닌가?

남죽여) 불편함이 의사소통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집이라는 공간 때문에 생기는 무언가인듯한.

도 도) 나 같은 경우는 애인과 집에 함께 있으면 그냥 있다가만 간작이 없었으니깐, 머라고 해야하나. 글썽

남죽여) 나는 내가 혼자 사니까 상대방이 당연히 온일한? 장소로 집을 택하는 것도 실을 때가 있고, 집에 오면 또 당연히 무언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을 때가 있던 게지. 머랄까 부모랑 같이 살면 놀다가 아쉽게 빠이빠이하면서 헤어지는 - 머 이렇게 될텐데 혼자 사니 그리되기 어려워진 적이 있어서

동 네) 난 애인과의 스킨십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혼자 사는 방이 편하긴 했지만 함께 있을 때 내 방이 꼭 그 용도로 한정지어지는 않았어

도 도) 난 이시오고 난 후로는 그러한 용도로 한정된 듯 해

만담중) 음 난 동네와 비슷

남죽여) 또, 애인뿐만이 아니지 혼자 사는 게 부모로부터는 떨어져 있어도, 다른 이들과는 또 떨어져지기 힘든 상황을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아

만담중) 그래 맞아. 내가 신림동 아파트를 자주 이용하던 그 때 정말 장하게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 맨날 일곱 여덟명씩 --

동 네) 응. 나에게 그런 압박은 룸메가 나타나면서 사라졌지

만담중) 응 룸메라.

남죽여) 룸메는 좋은 것 같아

동 네) 서로 습관을 조율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처럼 간섭하지도 않으면서 함께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주지

도 도) 난 이제까지 혼자서만 살아보지는 않아서. 룸메보다는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

7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에게 기여하는 성폭력적 위협들

동 네) 그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자. 성폭력적 테러

만담중) 성폭력적 테러는... 밤새도 부둣가 π π

남죽여) 응 매우 많아. 아주 많아. 무척 많아.

만담중) 학교 동문쪽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지. 매일 매일 밤의 공포와 근근히 일어나는 사건들과

남죽여) 나의 혼자 살을 알리지 말라야.

만담중) 하지만 자취생활 많은 동네는 거기 산다는 이유로도 테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히

남죽여) 응. 그 동네가 변하지 학교근처란

만담중) 경찰차가 그렇게 돈든했던 때는 없었다.

남죽여) 경찰도 이상해. 나 집에 도둑 들었을 때 경찰아저씨 머칠 우리집 앞에 순찰차서 불내고, 이상한 말하고 그러고 갔어

만담중) 이상한 말?

남죽여) 조사차 집에도 들어왔고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까. 무섭지 -- 근데 머 언제 커파나 같이 먹지는 등.

만담중) 헉. 참잔한다

도 도) 예전에 학교 근처 살 때 반지하에 살았는데, 반지하란 참으로 기분 나쁜 공간이지

만담중) 온갖 관음증번태들의 목표물이지

도 도) 창가에 서 있어도 얼굴은 안보이고 허체만 --

동 네) --

도 도) 컴퓨터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밤이었음. 한 7시쯤? 잠깐하자는 말을 했었어. 근데 창밖에서 손가락 비트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창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얼굴은 안보이고 머가 사람 다리 같은 게 있는 거야. 자길 보라는 거지

만담중) 헉

도 도) 바지 내리고 자취하는 새끼인 거야

만담중) 미친놈..

도 도) 상황 파악을 한 순간 그대로 얼었지.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꺼져 마친 새끼야', '줄라 학내' 등등의 말을 준비했었는데

만담중) 절대 안나오지

도 도) 그런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대로 얼었지. 그러다가 사라지는데 너무 무서워서 밖에도 못나가고 모니터만 계속 보면서 떨고 있었다. 혼자 있을 때라 더더욱 정말 눈물이 뿜어져 나더라. 그리고 만약 준비했던 그런 말 했다가 그 새끼가 얼굴 썩 내밀면 어뜨케. 혹은 문밖에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면 어뜨케

만담중) 아침에 나갈 때도 무섭지 주위를 살피고 나가고, 내 얼굴 알아들까봐

도 도) 맞아 맞아 맞아

만담중) 요기조기 살피고

도 도) 또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

만담중) 대체 누가 잘못된건데. 맞아. 나는 특히나 사위할 때 사건 화장실 창문이 밖으로 나 있어서 잠근 거 확인 안하고 샤워했다가 누가 보고 있던 거 알고.

도 도) 흑

만담중) 그때의 공포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답날 아침에 나가는 거 정말 무서웠다

도 도) 그지그지. 그거 정말 말로는 못하지. 정말 끔찍해

남죽여) 난 가족사 있을 때 음란 전화에도 시달렸어

동 네) 헉. 가족사에서?

남죽여) 가족사에 많이 내선으로 그런 전화 한마디로 올 학교 아이들 중 하나란 게지. 줄라 죽겠는데 벨 울려서 받으면 학학대고 있는 거야. 한 학기 살면서 두 번 받았어

만담중) 응. 나는 그 쪽문 지나가는 게 힘들었지. 안전가 쪽문 곁에서 여학생 한명이 맞았다는 얘길 듣고, 늦게 다니는 날이 많았던 나는 공포에 떨며 다녀야 했어

동 네) 내 자취방 바로 앞방에 여대생 두 명이 살았는데. 그 집에 연 아저씨가 술마시고 쳐들어가서..

남죽여) 헉

동 네) 주인집 아줌마, 자방의 그 두 사람 부모님이 달려오고 건물이 뒤집어진 적이 한번 있었어. 말 그대로 공포였지

도 도) 아까 내가 말한 그 사건 때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 미친 새끼의 책상이 방충망에 남아있었다는 거지

만담중) 오아아악!!!

도 도) 정말 끔찍했지 않겠나?

만담중) 어휴. 장난 아니다

도 도) 근데 나 서울 오기 전 언니들 살 때도 그런 일 있었대. 방충망에 흔적 남고 창밖에 여자 팬티 떨어져 있었대

만담중)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겪은 일들은 예외적인 일들이 아니야

도 도) 결코 네배

7 AM 1:30 이야기를 접으며..

도 도) 사실 만나서 얘기하면 훨씬 많은 이야기가 나올텐데

남죽여) 맞아 밤에 치킨 사다가 맥주랑 먹으면서

도 도) 무척

만담중) 어우. 오늘 그럴걸 ^^

남죽여) ㅎㅎ 날잡아

도 도) 그래 개강 전에 날 잡아서 한술이 합서

만담중) 다들 오늘 수고했어

남죽여) 그래요

도 도) 못다한 이야기 많지만~

난 지금도 혼자만의 시간에 뭔가 즐거워했다는 생각을 못하겠어. 혼자서 가만 생각하다보면, 이 모든 게 내 부모의 경제력에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나. 정착 하지는 못하고 사달리기만 하는 일과가 반복되곤해.

장애여성의 독립

- <거북이 시스터즈>를 보며



고궁 (관악여성모임연대)

올해 초 설연휴가 끝나고 다시 서울로 왔을 때, 친구들에게서 <거북이시스터즈>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장애여성공감과 여성영상집단 움에서 만든 장애여성들의 독립에 관한 영화인데, 굉장히 좋았다는 평이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나는 장애여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한 발 물러서서 '나는 잘 몰라요'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고, 사실 이해하거나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편이었다.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해 무성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장애와 여성,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드러내는 "장애여성"이라는 단어 한 마디 하는 것조차 어색해했다.

여성장애인, 장애인여성, 장애자(장애인)

대해 비하가 담겨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말들을 무심경하게 썼을 정도이니, 나의 무지와 몰이해의 정도는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반년이 지난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전처럼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좀 가르쳐주세요' 하는 식의 태도는 탈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변하게 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거북이시스터즈>라는 영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북이시스터즈>가 계몽영화 같은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명의 장애여성의 일상에 카메라의 시선이 얹으

며, 자연스럽게 그녀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준다. 더불어 기존의 장애여성에 대한 시선처럼 그녀들을 "불쌍하고 순수하게 보이도록" 다루거나, "이중삼중의 세상에서 가장 억압을 많이 받는 희생자인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 당연하겠지만 - 일상의 일들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녀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서두가 너무 길어졌다. 이제 꼬물꼬물 독립 5년째의 그녀들의 일상으로 들어가보자.

#1

"독립하고 싶었다.
나만의 생활과 공간을 갖고 싶었다.
그리고 혼자서 이동하고 싶었다."

- 박영희 (42세, 소아마비/1급 장애, 장애여성공감대표)

독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 집, 직업 등등.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이동'이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있는 대중교통 체계와 시설들은 장애인이 몇 명째 죽어나가도 바뀌지 않고 있다. 비장애인들은 지하철 몇 분 늦는다고,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불평하지만,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조차 박탈되어 있다.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철역이 수도북하며, 버스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나마 있는 리프트 역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으며 언제 사고가 또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은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여러 가지 시선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 등을 장애여성들은 겪게 된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갈 때 쳐다보는 시선들,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공주마마 남시네" 식의 말, 혹은 지하철에서 이동하는 와중에 "머리는 누가 이렇게 예쁘게 빗겨졌어?"라며 쓰다듬는 사람, 전동휠체어를 밀어준다면 필요없는 도움을 주려는 술취한 아저씨 등. 장애여성을 어리게 취급하며, 당사자의 입장은 고

려하지 않은 말과 행동, 시선은 이동하는 순간에도 불쾌함과 불편함을 준다.

한편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용콜택시의 경우, 지체장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고,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건 장애인인데 기사에게서 "일찍 좀 다녀라"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콜택시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때로는 한 기사분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될 때도 있어서 항의를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겪는 폭력 방지, 대중교통 이용시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권은 꼭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좀더 빨리 독립을 준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른이 넘어 오히려 처음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다."

- 정영환 (36세, 골이형성부전증/1급 장애,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독립을 하는데 있어서 주거의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 역시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장애인이 살 만한 집을 찾기로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을 역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세 집을 구하지 못하고 돈을 더 주고 살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를 얻으려고 해도, 결혼을 한 가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복지제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독립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장애여성들을 그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정상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기대하

영화에서
인상적인 것이 있었다면,
지체장애여성들이지만
각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세 여성이 보이는 서로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각자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부담이 자연스러우며,
서로에 대한 의존이 전혀
그녀들을 무력하거나 나약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는 사회에서 장애여성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타의적으로 배제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성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장애여성들 역시 결혼을 기피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결혼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장애여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택 정책 등 복지에서조차 결혼을 중심으로 한 복지혜택은 그녀들을 소외시킨다.

이렇게 가시적인 사회적 권리의 차별 외에도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애여성들의 '속도'이다. 처음 이사해서도 각자 장애에 맞게 공간을 배치하느라 집정리가 1년은 걸렸다고 하는 영란 씨의 말이 '장애여성들의 속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듯하다.



흔히 '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외모, 말, 행동 등은 그렇지 않은 '비정상', 주변을 만들어 내며 '정상'이라는 중심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차별을 정당화한다.

상상을 해보자. 플래쉬댄이라는 어느 외화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빨라지고 나만 현재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그러한 차이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빠르지 못하다고 해서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주위의 비웃음을 산다면? 나의 속도를 배려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는 데 느리다고 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의 속도만큼 움직이기를 강요한다면? 황당한 상상이기만 할까? 장애여성들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영화에서 이사를 통해 보이는 장애여성들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그녀들의 경험에 이입하게 한다. 그리고 그녀들의 속도와 장애를 이해하지

못한 행동과 시스템들이 얼마나 불합리한지-솔직히 얼마나 짜증이 나고 답답한지가 더 맞는 말일 것이다-도 깨닫게 한다.

영화에서 인상적인 것이 있었다면, 지체장애여성들이지만 각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세 여성이 보이는 서로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각자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분담이 자연스러우며, 서로에 대한 의존이 전혀 그녀들을 무력하거나 나약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존하며 사는 것들을 "공기"에 비유하며 아주아주 가끔 그 "공기"들에 대한 찬사를 보낼 뿐이다. 이미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다하며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다만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그렇지 않았을 뿐이다. 종속적이고 수동적이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서로에 대한 의존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무기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전달하고 있다. 아마 정말 필요한 것은 비장애인 중심의 편견과 가치,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닐까?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거북이시스터즈>의 핵심! 세 장애여성이 독립을 선택한 이유를 들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때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부모님 밑에서 살라고 한다. 하지만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면서 우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 삶을 스스로 조정하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독립해서 사는 이유이다."

- 박순천 (31세, 척추관협착/급 장애, 장애여성공감간사)

제 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평화도록 파란 하늘,
마스하게 내려오는 햇살,
천천히 기지개짜는 게으른 구름,
평화롭게 흘러가는 하루,
멋진 날, 어느 멋진 날.

그러나,
평온으로 찰해진 일상의 껍질을 안겨줄 땀과 피로가
검푸른 상처와 조용한 비명들,
있고 싶고 피하고 싶어서
차라리 부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
그렇지만 눈감을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엄연히 존재하는, 그 아픈 것들.



영화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는 2019년 영화상업계, 전사회적 여러 프로그램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하여 여성 성폭력, 아내폭력, 성폭행 등에 관한 고민을 풀어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들의 '어느 멋진 날'에 균열을 내고 그 보이지 않는 사회로 보이는 일그러진 실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랑과 힘을 보탬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려 한다.

이 자리를 함께 채워나갈 분들을 기다립니다. 참여신청의 메일 kmmr@yoon.ac.kr이나 2123-3645로 연락주세요.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글 성미라 (성신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은 어떤 식의 관계가 가능한가. 집단적 정체성으로서 ‘여성’을 강조하고 대안적 가치로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페미니즘과 무의식/타자, 분열된 주체를 이야기하는 정신분석학은 어떤 지점에서 조우가 가능한 것일까. 혹은 그 조우가 가능하거나 한 것일까.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의 관계 맺기에 관한 논쟁은 페미니즘 내부의 지속적인 과제의 하나였다. 초기 대표적 페미니스트들인 베티 프리단, 슬라미스 파이어스톤, 케이트 밀레트 등을 필두로 사회 구성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정신분석학의 남성중심성과 가부장성은 계속해서 비판받아 왔

다. 그러나 후기 페미니스트들은 정신분석학을 재해석하고 정신분석학이 주는 통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페미니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페미니즘을 연구하거나 활동하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서구 백인 중산층 핵가족 모델을 비판하면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스트의 ‘무비판적’ 서구이론 수입과 이론의 식민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한다.

과연 정신분석학은 페미니즘의 ‘적’으로써만 존재하는가? 적과의 동침을 통한 균열과 틈새내기는 모두 아버지의 법을 답습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재흡수, 재통합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즉,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스트들은 모순과 유혹, 사랑과 긴장 속에서 고군분투하지만 결국엔 아버지의 ‘충실한 딸’ 노릇을 자처 혹은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변혁과 전복의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허황된 이론적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

저항하는 딸들의 유쾌한 반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정신분석을 분석해보자는 야심으로 함께 모여 공부하기 시작한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학 세미나 팀의 2년여간의 연구결과물이다. 이들은 페미니즘이 전유해야 할 정신분석학의 통찰을 젠더에 따른 주체의 탄생신화, 성차, 섹슈얼리티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신분석학이 성장에 따른 주체성 구성과정을 어떤 이론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되는 주체가 언제나 남성주체였으며 정신분석학이 말하는 욕망 역시 남성의 욕망일 뿐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정신분석학에서 여성은 대상화 혹은 타자화되거나 남성적인 욕망의 증상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를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의 책표지 그림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라캉은 자신이 구입한 귀스타브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239쪽,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그린 그림)을 가리키 위해 앙드레 마송에게 그림(<예로되한 대지>(17쪽))을 부탁한다. 그 가리개는 대지화된 여성의 나체와 그 여성의 성기로 한 작은 남성이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그림이다. 라캉은 <세상의 근원>이라는 여성의 몸을 혼자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욕망했을까. 브라이도티는 알고자 하는 욕망과 의지를 부추기는 애초의 호기심은 무엇보다도 욕망이며 욕망은 지식을 그 대상으로 취한다고 본다. 알고자 하는 욕망은 “나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자신의 기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때 안다는 것은 대상을 지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그 대상을 찢어발겨 보려는 시각애호적 충동의 결과이다(어린이가 장난감을 다 분해해서 그 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고자 하는 욕망을 생각해 보라). 자신의 ‘기원’으로써의 어머니의 몸을 끊임없이 비체화하면서도 환영적인 극장으로 어머니의 몸을, 자궁의 내부를 선택한 남성들의 욕망에서 라캉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으리라.

페미니즘은 이러한 (남성 중심의) 정신분석학적 욕망에 대한 전복을 꾀한다. 정신분석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학세미나팀
도시출판 여여연 2003



학이 가지는 한계와 비판에 열려있으며, 정신분석학이 가지는 긍정적, 생산적 통찰을 잘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책의 필자 중 한명은 이렇게 말한다. “정신분석학의 키워드를 읽어가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가 유지하고자 하는 성적 질서를 확인하고 반복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 질서를 위협하기 위해 정신분석학의 기재들을 빌려와 개념들을 확장하고 역설과 모순을 발전시키고 변용의 사례를 끊임없이 찾아 쟁점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신분석학을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전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주인의 연장으로 주인의 집을 허물어낸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고 서막에서 밝힌다) 이제 그녀들은 유쾌한 시도를 주저없이 감행한다. 그것은 정신분석학을 엄격한 과학적 담론이 아닌 오히려 재미있는 이야기로, 농담의 대상으로, 시학으로 읽어보겠다는 것이다. 밀폐된 여성의 공간 속에서 정신분석학 자체의 하중에 힘겨워하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의 공손한 딸들, 충실한 딸들이 아니라 반항하는 딸들, 저항하는 독자, 혹은 히스테리아의 역할을 자청해보려는 것이 이 책을 기획한 의도라고 말한다. 정신분석학에 대한 이들의 저항적 독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 막의 극

이 책은 크게 세 막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극화와 이야기는 서막, 1막, 2막, 3막이라는 제목의 구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 1막 정신분석으로 읽어본 열 두 가지 개념은 가족 로맨스, 사랑, 애도와 우울증, 매저키즘, 히스테리, 환상, 페티시, 기괴한, 전이와 역전이, 주이상스, 코라, 여성적 섹슈얼리티로 짜여진다. 정신분석학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들임과 동시에 성장과 여성의 주체형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욕망했지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정신분석학. 그러한 정신분석학의 개념들과 서사가 가지는 불연속성과 모순, 이질성, 균열과 틈새를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재전유하는지를 필자 각자의 글쓰기를 통해 꼼꼼히 짚어보고 사유와 할 수 있다. 2막은 페미니즘으로 읽은 정신분석 실제비평으로 여성작가의 소설작품과 영화를 흥미롭게 분석한다.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은 김형경의 소설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이 끊임없이 드러내는 아버지/정신분석학/남성에 대한 욕망과 어머니 부재, 외디푸스 삼각형 모델의 한계에 대해 페미니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술래를 찾는다: 술래와 숨는 아이의 숨바꼭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청빈한 선비상의 허구성과 이중성을 폭로하면서, 가난한 선비와 인륜과 예의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문화에서 은폐되었던 아내들/그녀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이들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한 작품들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이남희의 작품을 전이/

역전이 개념을 통해 정신분석한다. ‘육식하는 여자들: 전능과 무덤 사이’는 낯설고 기괴하며 엽기적인 여자들이 패거리로 등장하는 천은영 작품의 여성인물들을 정신분석한다. 이 글은 그동안 타자화되어 제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여자들에게 육식성과 공격성, 육체성의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비천한 몸의 여자들이 가부장적 질서를 공격하고 마음껏 유린하면서 벌이는 카니발을 작가의 전복적 상상력으로 읽어내고 있다. 이외에 프랑스와 오종의 <8명의 여자들>이라는 영화를 히스테리 개념과 여성들간의 욕망, 가부장제에 위협을 가하는 여성 중심적 교환관계로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는 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기획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는 빨간 망토 소녀와 늑대인간이라는 제목의 극본이 수록되어 있다. 세미나팀에서 프로이트의 ‘늑대인간’을 공부하던 중 늑대인간의 이야기 속에서 그의 누이라는 친족질서 속의 한 위치로만 나올 뿐 자신의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그녀를 부각시켜 끝을 다시 짜기로 하면서 이 극본은 시작된다. 늑대인간의 누이를 이네사라 이름짓고 그녀에게 합당한 목소리와 그녀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 늑대인간과 프로이트, 들뢰즈에 대한 반향과 전복을 꿈꾼다.

3막은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으로 줄리아 크리스테바, 주디스 버틀러, 엘리아제스 그로츠 이 세 이론가의 글들이 번역되어 있다. 이 번역들은 1막의 글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으므로 먼저 읽는 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우울증적 여성과 모성에 대한 개념을 실제 분석 사례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버틀러는 프로이트의 애도와 멜랑콜리아라는 개념들로 젠더를 멜랑콜리의 일종 혹은 멜랑콜리의 효과로 분석해 낸다. 즉 버틀러의 우울증은 동성 부모에 대한 억압된 동성애적 욕망이 금기의 근원이 되면서 금지의 거부, 부정의 부정을 통해 젠더가 우울증의 양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그로츠는 남성주체의 구성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프로이트의 페티시즘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페티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프로이트와 라캉, 지젝, 크리스테바, 버틀러, 그로츠 등의 쟁쟁한 이론가들의 이론과 핵심개념들이 그다지 낯설지 않은 독자들에게 이 책의 의도가 좀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 까라는 점이다. 하지만 오용과 오역의 논쟁을 넘어 정신분석학의 모순과 틈새를 드러내고 확장함으로써 복잡다단한 여성의 현실과 삶과 감정을 분석하고 언어화했다는 시도에 의의를 둔다면 이 책은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주인의 연장, 아버지의 연장, 서구의 연장으로 우리 각자가 서있는 위치에서 어디에 균열을 내고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고 무엇을 새로이 지을지에 대해서는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나/당신/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TV를 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천생연분'을 찾아 헤매야 할 운명을 띠고 태어난 것만 같다. 그 끝이 어디가 될지는 모른다. 다만 지나치게 나이가 들기 전에 이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압박 속에서, 이 여정은 더욱 숨가쁜 것이 된다. 올바른 결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듯, 남성과 여성 커플을 이루고 되도록이면 결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함께 살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취득하며 아이를 낳아 정상적인 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TV드라마들은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장애와 극복, 그리하여 아름다운 정상가족을 꾸리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우리는 두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한다. 각각의 개인이 아닌 커플의 미래, 사실 개인이 궁금하다면 그거 더 이상할 것이다. 그 둘은 언제나 함께 하는데, 같은 미래를 가지고 있을 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커플 한 세트의 미래이다.

영화 '싱글즈'는 제목부터 이런 일반적인 스토리와 거리가 멀다. 두 남자와 두 여자가 누워 있는 포스터만 보고서 이 네 명의 싱글들이 두 쌍의 커플로 거듭나는 이야기일 거라고 지레짐작했던 내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게 했던 이 영화는 그 빗나감 때문에 훨씬 신나는 것이었다. 엄정화와 장진영, 이범수와 김주혁 모두가 싱글로 남았다. 그들 사이에 어떤 로맨스가 있었건, 혹은 그들이 어떤 결말을 꿈꾸었건 영화의 결말은 그들을 이성애 커플 안에 가두어두지 않는다. 엄정화는 혼자 아이를 낳고 살기로 결심하고, 장진영은 결혼과 미국행을 접은 채 자기가 '동인지 된장인지' 알아볼 시간을 가지기로 한다. 나이 서른에 뭐 대단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그녀들의 선택은 그다지 근사해 보이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집에서 곰팡이 핀 식빵이나 혼자 먹고 있는 그녀들의 모습이 처량해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떤가. 그녀들의 결말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며 그녀들을 위해 열려있는 것들이니, 그런 길을 택한 그녀들의 발걸음을 보는 마음은 유쾌하다.

하지만 사실 그녀들을 보며 엄청나게 공감을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스스로를 자꾸 그녀들의 자리에 대입시켜보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천생연분'은 없다

노처녀 히스테리, B사감과 같은 기묘한 이중성.

조금 가볍긴 하지만 남자 이야기만 하면 눈이 뒤집히는 논스톱의 효진, 혹은 로맨스 소설에 광분하는 '미저리'의 캐시 베이츠.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인물 유형은 그녀가 '천생연분'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낙오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패인지를 보여주는 듯 하다.

글_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석사과정)

것은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 돌아오는 시선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것이다. '천생연분'을 찾기 위한 여정의 낙오자, 혹은 일탈자, 그래서 한심하고 무능한, 혹은 위험한 존재들. 그것이 혼자 사는 여자들 아닌가.

'Single White Female'이라는 영화의 한국 개봉 제목인 '위험한 독신녀'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표현이다. 혼자 사는 여자는 그녀들에게 주어진 인생 각본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일탈자이며 그 자체로 위험한 존재이거나 혹은 경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처벌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녀의 매력은 매력적이지만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며 적절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녀는 성적으로 의심스러운 존재가 된다. 얼마 전 KBS TV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한 장면.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여자가 선을 보러 갔다. 학교가 면대 자취했느냐는 질문에 집에서 통학했다는 거짓답변을 하는 여자를 흠뻑하게 쳐다보는 남자의 모습은 그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혼자 사는 여자가 매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녀는 히스테리 부리는 '노처녀'의 딱지를 붙인 문제 있는 여자가 된다. 노처녀 히스테리, B사감과 같은 기묘한 이중성. 조금 가볍긴 하지만 남자 이야기만 하면 눈이 뒤집히는 논스톱의 효진, 혹은 로맨스 소설에 광분하는 '미저리'의 캐시 베이츠.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인물 유형은 그녀가 '천생연분'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낙오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패인지를 보여주는 듯 하다.

'싱글즈'는 '천생연분'의 여정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열어두는 여성들을 활기차게 보여주며 이런 지긋지긋한 편견들에 도전한다. 그리고 그 도전

이 가볍고 유쾌하게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도 하다. 비록 영화가 끝난 뒤 나의 삶을 그 영화 속 주인공들에 대입해보면서 한숨을 쉬게 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혼자 사는 길을 우선 택한 여자들의 멋진 우정은 크나큰 위안이다.

사실 '딱만 찾으면 만사형통'인 세상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얼마 전 종영된 '알집 여자'는 약간 실망스러운 구석도 있지만 여전히 유쾌했다. 그것은 이 드라마 속의 평화로워 보이는 세 집이 가지고 있던 균열들을 무겁지 않게 드러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균열들을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보여주는 대신 삶의 한 부분으로 보여줌으로써 정상가족을 깨는 사람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 대신 천생연분의 신화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짝은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행복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현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새짝을 찾는 것이 결혼이 될 수 없음 역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는 꽤 마음에 들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첫사랑의 신화가 남아있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대단한 첫사랑과 유희정을 새로운 커플로 이어주는 대신, 친구 변정수의 샌드위치 가게를 인수해 딸과 함께 멋지게 살아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말은 아쉬운 대로 좋지 않은가.

삶을 열어두는 여성들의 모습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많이 보여져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TV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보기란 쉽지 않다. '싱글즈'에서 푸른 곰팡이 핀 식빵을 뜯으며 취업 정보 사이트를 뒤지고 있는 모습이 유난히 반갑게 느껴진 것은 나 뿐이었을까. 크리스마스에 두 여자가 만나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 가슴이 찡해졌던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을까. **정지연**



1. 안노 모요코 - 연애상담가 소년지에 연재 중

안노 모요코의 19세미만 구독불가인 만화 '해피 매니아'를 본 적이 있는지 이 작품은 자기 육구에 엄청 충실한 한 여성이 연애라는 행복에 중독되기 위해 온갖 난리를 다 파우다가 결국 조건 좋고 착한데다가 자신만 바라보는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듯 한다. 하지만 작가는 그 흔한 해피엔딩에서 좀 비껴간다. 주인공의 '내가 왜 여기 있지? 애인이 갖고 싶어 땀 흘린 만큼의 행복이란 게 어딘가에 있을거야'라는 나레이션이 담긴 마지막 5page가 그것을 얘기해 준다. 안노 모요코란 작가는 이밖에도 '러브 x 마스터', '젤리빈즈' 등에서 시원한 연출과 감각적인 그림체, 톡톡 튀는 캐릭터로 십대 이십대 여자들의 주 욕망인 연애, 패션을 밀도있게 관찰, 날카롭고도 유쾌하게 스토리를 풀어내어 일본 레디스 만화계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안노 모요코는 내가 카오리 오노즈키란 작가 이후 야한 만화에서 여자가 소외되지 않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일본의 상황을 참 부러워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안노 모요코가 소년지에 연애를??? '꽃과 꿀벌'은 작가가 처음으로 소년지에 도전한 작품이다. 소년만화에 속해 있어선지 한참 동안 이 작품을 모르고 있던 나는 처음 순정만화 작가인 한 언니에게 강추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의구심이 들었다. 다리 길고 가슴은 큰데 청순하고 귀여운 여자캐릭터가 너무한

소년지에 이 작가의 색다른 여성 캐릭터들이 그리 미움을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여성이 주 독자인 만화에서 오히려 자신의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색시함을 한껏 누리는 이미지로 사랑받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남자가 주 독자인 소년만화에서 노골적으로 성적 노요기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맘이 편치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작가의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작가는 기존의 여성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자유분방하고 당당한 면을 이 작품에서도 여전

히 매력적으로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 작품은 기존작물의 매력에서 한발 더 나간 듯 보인다. 바로 작가의 대변자인 여러 여자캐릭터들이 앞장서서 남자주인공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 스토리소개 - 멋진 여자친구를 가질 자격 갖추기 스텝들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왕 평범하다 못해 촌스럽기까지 해서 존재감이 없는 고딩 소년 코마즈 노리코란 인기녀를 동경하게 되어 '인기있고 싶다' 욕구가 극대화되고, 결국 미용실에서 돈을 깨며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 하지만 성격 자체가 둔감해 유행에 뒤떨어지는 그 녀석 같은 반 쿄쿠 사쿠라가 보다보다 답답해 따로 불러내어 조언을 할 정도이다. 1단계 아름다운 용모 가꾸기가 어느 정도 성공해도 오르지 않는 어디 인기 얻기가 쉬운걸? 모델제외까지 받은 노리코는 그를 여전히 감지조차 않는다. 자신감이 없는 코마즈는 스타일링 직장에서 놀람받는 여자에게 원조 교재를 제의받고 경험치 없다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한다. 그래서 뛰어난 미남 만들기 교실에서는 색시하고 노련한 두 자매를 만나게 되어 내외적으로 고통스러울 정도의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두 자매가 코마즈를 업그레이드 시킨 채 2단계가 바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 키우기. 근거없는 자신감! 그것이 360도 추남인 친구 야마다의 유일한 강점인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왕자병에 걸렸다고 그 옆 코웃음치던 코마즈는 귀여운 여자가 야마다에게 반하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후 열굴에 대대적인 공사를 감행해서 미남선발대회까지 나가는 야마다를 보면 좀 씁쓸해지지만, 그리고 야마다에 대한 경쟁심에 출전한 미남선발대회에서 받은 운으로 본선에 오른 주인공은 이를 계기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획득하지만 그 와중에 반하게 된 유부녀 부부에게 하인으로 농락당하면서 결국 자신이 꿈꾼 로맨스의 본질은 플라토닉이 아니라 성욕이라는 걸 배운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 여자를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한차원 성숙해진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단계는 수~북하다. 도깨비 자매에게 받은 조언으로 여자에게 자상하게 대하는 방식을 써먹어 평범하지만 귀여운 나카자와와 사귀게 되지만 계산적이고 뒤흔린 자존심을 가진 나카자와에게 역시 진심이지 않기에 휘둘리기만 하는 코마즈. 이후 우연히 만난 공사장 아저씨에게 '모르는 사이에 도와라. 마음 속 그대로 드

래내 표현하라'는 비법을 전수받은 코마즈는, 그 어려웠던 여정 내내 자신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해준 무섭지만 귀여운 아이 사쿠라에게 그때 그때 드는 마음, 생각을 표현하다가 결국 '사귀자'란 말을 꺼내게 되고, 사쿠라는 주변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고 코마즈를 귀엽게 여기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연애해본 적이 없는 문수 엽기소년 코마즈는 데이트 장소를 잡는데도 실수를 연발하고 이를 감싸주는 강하고 멋진 사쿠라의 리더에 감동하게 되지만 자신감은 점점 바닥으로 가고 사쿠라의 인기에 대한 질투심은 골게 되는데...

3. 여자들의 진짜 이상형 - 킹카에게도 부족한 몇가지

6권까지의 스토리는 대강 이렇게 진행중이다. 다음 권의 광고 표제는 '여신과 하인의 사랑의 결말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예선 다 통과가 되어 아직 사보지 못했지만 너무 흥미진진하다. 스토리만을 놓고 보면 이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보통의 10대 남자애들에게 채찍과 당근을 주는 교본서로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이 작품의 매력은 바로 여자들이 실제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를 속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쿠라는 코마즈와 사귀기 전에도 요지, 연도라는 매력남들을 남자친구로 두었다. 요지는 건장하고 터프한 외모로 자신감을 암세우고 사쿠라를 리드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허세이자 자만심이었고 결국 목욕을 휘두르는 요지에게 사쿠라는 이별을 고한다. 그 뒤 사쿠라는 부드럽고 항상 남의 입장에서 배려를 하는 호남형 연도와 사귀게 된다. 하지만 연도는 너무도 좋은 사람, 완벽하기 때문에 남에게 영향을 주고 싶고 연애의 독점적 부분에 예민한 사쿠라가 괴롭혀주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사쿠라가 코마즈를 거두어 줄때 쯤, 연도는 코마즈의 동경의 대상인 청순가련형의 공주, 노리코와 사귀게 된다. 남자하고 싸워도 놀리지 않고 당당한 사쿠라를 처음에는 무서워한 코마즈처럼 보통의 남성독자들도 그녀를 두려워할지 모른다. 그러나 여주인공은 노리코가 아닌 사쿠라이며 사쿠라는 여자를 떠나 한 사람으로서 강함과 유함의 미덕을 동시에 지

닌 진짜 멋진 여성이자, 그런 그녀가 불운 없어 보이는 코마즈에게 반하게 된 코마즈의 장점이 결국 이 작품이 남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그것은 대가가 바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센 맷집과 항상 발전하고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자신감을 가장하고 부리는 허세나 가식에서 서툰 코마즈의 순수하고 진지한 모습. 여기서 연도에게 부족했던 그 귀여워서 '키워주고 싶은' 맘을 자극하는 데에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것만으로 여자에게 멋진 남자친구가 되어주는 게 힘들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연애관계를 떠나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베이스로 깔려있어야 하는 요소들이지 않을까. 아직 어리버리한 코마즈는 '정 이 드는 것밖에 사쿠라를 잡아둘 방법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는 그는 착하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인의 위치에서 킹카의 위치로 상승할 가능성에 있지 않다.'

4. 연애의 악순환 깨기

자기가 오케이를 한 후에 곧장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당황해 하는 순진남 코마즈를 바라보며 사쿠라가 그런 과정을 소개해본다.
<일단 전다 - 말다툼(돈, 바람기의심한다) - 다정하게 지낸다 - 말다툼(결점점지적) - 출발>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다가 끝장나는 경우가 다반사인 남자와 여자의 연애사를 들추어내는 작가의 의도는 물론 연애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는 점도 있겠지만 '여자의 목소리와 욕망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아직 머리가 굳지 않은 몇몇 남자들에게 가하는 일침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바보같지만 착한 소년 코마즈는 열심히 또 열심히 여자나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우려 하고 성찰하고 있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남자를 몇번 사귀어 본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내리게 되는 결론은 주로 '똑똑한 남자보다는 착한 남자가 낫다'라는 것. 여성이라 해서 무시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려 하는 악역이 없는 남자, 인간의 친밀한 관계에 관한 감수성과 기술이 있는 남자가 진정으로 여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가볍지만은 않은 유쾌한 터치 여자가 데쉬하는 남자

물론 이 만화는 트렌드를 쫓아가며 통속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외모지상주의가 낳은 패션, 외모에 들이는 막대한 에너지, 자본에 대해 현실적인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작가가 '해피 매니아'에서는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으로 결혼과 대비되는 연애를 그리지만, 작가 전기에서 시집가는 게 곧 인생의 불날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안노 모요코는 자신의 삶에서는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욕망에 충실한 그녀의 통쾌한 작품은 여자들의 욕망 충족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앞으로 가 법계 제거해버릴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든다. 그리고 남자, 여자 만화의 이분법을 허물고 남자잡지에 여자 화자로 성공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안노 모요코는 최고로 멋진 만화가 중 하나가 아닐까. 보다보면 기존의 통념을 깨고 꽃을 남자로 꿀벌을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듯한 이 만화의 제목도 재밌다.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스스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여자가 데쉬하게끔 하는 노력하는 남자로 변신할 때, 비로소 여자, 남자 모두가 주체가 될 것이다. 주인공을 괴롭히며 현실적인 꽃미남을 제조중인 이 작품이 아직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이다.

by 단단

● '꽃과 꿀벌'은 학산문화사 발행이다. 안노 모요코는 예민골리온으로 유명한 안노 히로히코와 6권을 내기 전에 결혼을 했다.



남성이 배려한 세상

군대 성폭력과 “계간” 금지법

글 세탁소장 (dcyborg@hanmail.net) / 언니네운영진

● 출처: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 www.unninet.co.kr

비로소,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모른척하던 공공연한 비밀 하나가 한 사람의 죽음을 대가로 세상에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고참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한 육군 일병의 죽음은, 폭력에 둔감하고 특히나 모든 종류의 성적 폭력에 무지한 한국사회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그리고 과감하게도 이 무지함은, 곳곳에서 폭력과 동성애를 혼동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동성애자를 폭력행위자로 치환시키는 최대의 자기극을 연출한 후에야 손을 떼었다.

군대내의 성폭력은 이미 공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있던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 미만의 전역자 232명을 상대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3년 전의 정대철위원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10.5%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나타났었다.

조사에서 밝혀진 성추행의 유형으로는, 성행위 흥내내기, 신체 애무, 성경험담 말하기, 동침행위, 자위행위, 성기에루 등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 수치조차도 형편없이 낮은 수준인데, 단적으로 성경험담 말하기의 경우 필자는 6개월가량의 짧은 기간동안 10여차례 각기 다른 사람에게서 강요받은 바 있으니, 그런 정도 수준의 성희롱은 거의 모든 입대자가 겪는 일인 셈이다.

군대에서 광범위하게 성적 추행과 폭력이 일어나는 근저에 전근대적 지배복종 체계로서의 한국군대가 놓여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내무반을 중심으로 완벽한 상명하복의 노예적 관습이 유지되는 군대에서, 정신적/신체적 제벌과 폭력을 통해 하급자는 상급자 개인의 소유물로 전락한다. 이것은 군대의 기강 혹은 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과는 상관없는 개개인의 명령과 복종의 체계로서, 모든 종류의 폭력을 동원하며, 모든 종류의 폭력을 가능하게 한다. 성폭력은 그 수많은 폭력들 중 은폐되거나 위장되어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개인의 차원에서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폭력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성폭력에서 문제는 그것이 폭력이라는 점과, 폭력이 암묵적으로 합법화된 공간으로서의 군대의 존재에 있다.

한국 군대의 법적 제도가 다른 나라보다 전근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한국 군대를 전근대적으로 만드는 것은 한국사회의 남성문화라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짬밥 서열은 나이주의의 변종이고, 짬밥에 따른 역할 구분은 성역할 구분의 변종이다. 제벌과 폭력은 일제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제도권 입시중심교육의 수십 년 간의 전통이며, 군대 내에서의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조롱과 멸시는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오는 고추-남근중심주의의 후속편이다. 군대는 한국 남성문화의 집대성이다. 그러나, 법적 제도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군대내의 동성간 성폭력 문제가 처음으로 여론을 타자 많은 억눌렸던 이들의 목소리가 분노로 표출되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혈기왕성하고 재기발랄한 시절의 대부분을 군대와 군대 주변에서 보내야하는 억울함 만으로도 충분한 터에 폭력과 제벌 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성폭력까지 겹쳐진 군대에서의 기억은 스스로의 인간적 존엄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특히 성폭력의 피해는 남성에게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분노는 정당한 곳, 군대의 남성적 문화를 타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폭력성의 근본에 있는 남성적 문화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어느 정도는 분노하는 이

들 자기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맞아야 정신차린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성폭력이란 폭력의 일종이라기보다 정신질환이나 변태성욕의 일종(이들에게 그것은 동성애로 파악됨)인 것이다.

이런 사고는 군형법 92조 “계간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항목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계간(鷄姦)”이란 동성간의 섹스를 뜻하는 말) “계간”과 “추행”이라는 동반지같은 두 단어가 합치되어 금지조항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및 폭력에 의한 성관계를 금한다”는 우스운 표현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남성들은 가부장적-폭력적 남성문화의 일부로서의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피해간다.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를 비판하기를 포기한 일군의 무리들은 그리하여,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삼는 마녀사냥을 시작한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폭행”의 근원이라 믿으며 그들은 오늘도 열심히 성폭행 가해자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폭력의 안쪽 깊은 곳에는, 마녀사냥이 그렇듯이 동성애자와 동성애 자체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신과 아주 가까운 곳의 누군가, 혹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남성들 특유의 동성애 공포증,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대상을 저주하고 박해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규정지어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차별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하지만 이 남성들도 스스로는 알고 있을테다. 군대내 성폭력 가해자들이 대부분 강력한 이성애자이며,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남성을 대하는 방식은 전형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의 완벽한 재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따라서, 동성애와 이성애는 양립불가능한 어떤 것이 아니며, 많은 이성애자 남성들이 동성애적 욕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얼마나 두렵겠는가.

동성 성폭행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얼마전 사병이 여성 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공개되었다. 사병이 야전막사에 몰래 잠입해 여성 장교를 성추행했고, 차후에 여성장교가 이 사병을 불러 자술을 받는 과정에서 일차려를 준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사병은 구속되었고, 여성장교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여성에 대한 성추행사건이야 워낙에 비밀비재한 세상이지만, 그가 아무리 여성일지라도 장교를 사병이 성추행했다는 것은 군기 해이를 떠나서 극명하게 남성과 여성의 위치, 남성적 군대에서의 여성의 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게다가 적지 않은 비난의 화살이 일차려를 주었다는 이유로 여성장교에게까지 돌아가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볼 때, 이 남성들의 욕망은 차라리 노골적이다. 정상적인 남성(이성애자)을 비정상적 남성(동성애자)과 여성으로부터 보호하라! 누가 남성 공화국 아니랄까봐!



성폭력,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몸에 각인 된 공포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방길에서 치한을 만난 이후로 낮 시간에도 그 곳을 지나고 싶지 않은 두려움, 당신도 낮설지 않을 것이다. 의식불명의 성폭력 피해 여성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만 되면 소리를 지른다는 이야기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실감케 한다. 그래서 나는 가끔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갖게 되는 상처와 고통의 무게가, 차마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이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의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피해자라는 이름 대신 생존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온당하다는 데 나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생존자'라는 이름이 더 절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성폭력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생존' 자체가 힘겨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율 1, 2위를 다투는 부끄러운 기록, 이 수치는, 폭력적이고 왜곡된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성폭력에 대한 어떤 예방도 대책도, 긴장감도 없는 '무방비국가'임을 보여준다. 조사를 받기 위해 찾은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고, 성폭력 사건의 법정 소송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피고의 자리에 앉게 만들기까지 한다. 이런 척박한 현실은 성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들, 지지자들을 더욱 외롭고 힘겹게 만드는 또 다른 가해자인 것이다.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질까봐...

지난 해 귀가 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한 여성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사건 직후 얼굴의 상처가 너무 빨리 사라져서 억울했다. 증거가 사라져서 사건이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라며(여성주의 저널 일다 "성폭력, 국가를 고소하다" 재인용) 생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갔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2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생존자는 지난 해 7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대로변에 맞붙어있는 인도를 걸다가 30대 남성 두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사건이 있는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을 잡기는커녕 2차, 3차의 피해를 입기만 했다. 경찰은 심각한 범죄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했고, "성경험이 있냐", "시



집도 가야 하니 주위에 많이 알려지지 마라", "과부는 (성폭행) 당해도 괜찮다고 하더라" (여성주의 저널 일다 "성폭력, 국가를 고소하다" 재인용)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생존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현실만 확인했다고 한다.

국가를 상대로 고소한다는 것

성폭력 범죄가 1, 2위에 이르는 국가, 그러나 신고율은 2%도 채 안 되는 나라,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고심하지 않는 정부, 성폭력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조차 모르는 경찰의 반응은 '성폭력'에 무감한 국가의 태도를 반증한다.

우리 헌법은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여성주의 저널 일다 "성폭력, 국가를 고소하다" 재인용) 성폭력 생존자와 지지자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국가 당국은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수사당당자를 계속 갈아치우는 기막힌 상황은 비단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보통 성폭력 사건의 생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지쳐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았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를 '가해자'로 고소하기도 한 것이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소송 전에 과연 이 방법이 국가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데 적절한 방법이 될는지, 설득력이 있을지 의견을 나누는 적이 있었다.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데에는 다들 쉽게 동의했지만, 증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나 여성 개인의 소송이 과연 국가로부터 어떤 적극적인 반응이나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억울하지 않은가. 피해 사실이 확실하고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주눅드는 현실이, 어디에도 항변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분노스럽고 억울하지 않은가 말이다.

그렇게 '성폭력 생존자 국가소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였고, 지금까지 200여명에 이르는 이들이 생존자와 함께 하고 있다. 생존자의 '작은 바람'인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고, 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에 압박을 주는 몸짓을 시작한 것이다. "후원이 아니라 참가! 지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구호로 이것이 생존자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여성 모두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운동을 벌여나가는 중이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동참이라는 이름으로 프리챌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송지원비 마련을 위한 1인 1만원 운동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성폭력 없는 세상, 그것은 생존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찾아야 할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 '아름다운 동참'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프리챌 커뮤니티 : home.freechal.com/womrights) **Don't Shout**

● 이 글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daro.com)의 기사 "성폭력, 국가를 고소하다"를 기반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_by 이갈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생존자'라는 이름이
더 절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성폭력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생존' 자체가 힘겨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Day Dream 4호
2014년 12월 1일자 공개예정
formnet@yoonsei.ac.kr / www.yoonsei.ac.kr-pattern

Day Dream A/R
 Copyright © 1994 Borealis
 Remnant @ yornet.ac.kr / www.yornet.ac.kr/~system

Day Dream
 200122 24 5531 8000000
 Rembrandt@yorktel.ac.il / www.yorktel.ac.il/~system

포도주 전문점

www.ttoore.com

T.G.I. FRIDAYS

신촌점 (메릴리뷰스도함)

T.G.I. FRIDAYS

프라이데이즈 배플로 왕'

무름시식권

1. 유효기간 : 2006년 12월 31일까지
 2. 이용처 : 신촌점 (메릴리뷰스도함)
 3. T.G.I. FRIDAYS 신촌점에서만 사용 가능
 4. 이용방법 : 1. 배플로 왕' 시식권 1장
 2. 1인당 1회
 3. 1회당 1인

[illegible]

토요레딩클럽 www.ttoore.com

베리베리 신동클 20% 할인

[만도계정만]

● 2007년 12월 20일 ~ 2008년 1월 15일 까지
 ● 만도계정 100원 이상 충전 시 20% 할인
 ● 만도계정 200원 이상 충전 시 20% 할인
 ● 만도계정 300원 이상 충전 시 20% 할인
 ● 만도계정 400원 이상 충전 시 20% 할인
 ● 만도계정 500원 이상 충전 시 20% 할인
 ● 만도계정 600원 이상 충전 시 20% 할인
 ● 만도계정 700원 이상 충전 시 20% 할인
 ● 만도계정 800원 이상 충전 시 20% 할인
 ● 만도계정 900원 이상 충전 시 20% 할인
 ● 만도계정 1000원 이상 충전 시 20% 할인

도토리닷컴 www.ttoore.com

페이퍼박스 이대점 10% 할인

[오도출판부림]

2020년 1월 20일

출판부림은 페이퍼박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박스는 출판부림의 대표 브랜드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박스는 출판부림의 대표 브랜드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용결제 서비스 (미어 크레딧 30일 이용권)
www.mycredit.co.kr/coupon
이용안내 1588-2486 (월~토 09:30~18:00, 096 크레딧 전용상담부)
쿠폰번호 : 2005717
유효기간 : 2003.12.31

Day Dress 42

Copyright © 1994 McGraw-Hill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Day Dress as

연세대학교 제 15회 졸업식
 termind@yonsai.ac.kr / www.yonsai.ac.kr/~system

Day Dread 48

Copyright © 2004 Wiley Periodicals, Inc.
 Published online in Wiley InterScience (www.interscience.wiley.com).
 DOI: 10.1002/jbm.b.30051

Day Dress 4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Yonse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42

연세대학교 의료재단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www.yonsei.ac.kr/~system

Day Dress 48

연세대학교 제15대 총아카데미
 termend@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as

Subscribe at www.yourself.ac.be/

Day Dream 48

2449142 24 1528 01419281
fernand@yorktel.ac.il / www.yorktel.ac.il/~system

Day Dream 45

Copyright © 2004 Wolters Kluwer
 kontakt@yonsei.ac.kr / www.yonsei.ac.kr - ysefm

Day Dream 42

연세대학교 의료재단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150-747, Korea
 Tel: +82-2-2228-2000 Fax: +82-2-2228-2001
 E-mail: ymcc@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ss 48

연락처 02-556-0000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48

CONTACT: 24 HOUR HOTLINE
 1-800-441-1000
 E-mail: info@yorktel.com / www.yorktel.com

Day Dress 42

Published by ISCA North America
 Journal @ 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40

Published in USA: Boston
 Downloaded by younsu.ac.kr / www.younsu.ac.kr/~system

Day Dream 40

Copyright © 1994 by McGraw-Hill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McGraw-Hill, Inc.

Day Dream 48

Copyright © 2004 by Yonsei University
 Printed in Korea
 All rights reserved.

Day Dress 48

Chapman at 1534 Bonning
 Terminal @ yosemite.ac.kr / www.yosemite.ac.kr - yosemite

Day Dream 44

CONTACT: M. IREK BODURKAN
 formosa@yornet.ac.kr / www.yornet.ac.kr/~yform

Day Dream 44

연락처 02-552-8041

Dry Dressing 40

CONTACT 26 958 0000
mailto:info@yornet.ac.kr / www.yornet.ac.kr-system